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고등학교 현대미술비평 지도 방안 연구

-게히건의 비평방법을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

박 재 희

2017년 8월

고등학교 현대미술비평 지도 방안 연구

-게히건의 비평방법을 중심으로-

지도교수 김 용 환

박 재 희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7년 6월

박재희의 교육학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17년 6월

A Study on Methods for Teaching
Modern Art Criticism in High Schools
-Focused on Geahigan's Criticising Methods-

Jae-Hee Park
(Supervised by professor Yong-Hwan Kim)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2017. 06.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
Thesis director, Kim, Yong Hwan, Prof. of Art Education
.....
.....
.....

(Name and signature)

.....
Date

Department of Art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국문초록>

고등학교 현대미술비평 지도 방안 연구
-개히건의 비평방법을 중심으로-

박 재 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
지도교수 김 용 환

현대미술로 불리는 동시대미술(Contemporary Art)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미술의 개념 아래 내포되는 미술 형식의 다양화에 따라 소재·기법·매체의 사용 범위가 크게 확장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급변하는 사회·문화·정치·경제의 흐름에 영향을 받으며 작품 창작의 의미와 개념, 표현의 방식 등 미술 전반에 걸쳐 총체적인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적인 미술 개념의 확장은 미술 교육의 접근에 있어 새로운 변화가 시도되어야 하는 필요성을 대변하기도 한다. 과거의 틀에서 미술을 감상하는 시각과 기준에서 벗어나 변화하는 시대를 반영한 작품 감상 방법과 이를 해석하고 비평하는 독창적인 시각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따라서 미술 교육에 있어서 표현 활동에 치중된 기능 위주의 교육보다는 표현 활동과 비평 활동이 골고루 반영되는 체계적이고 균형 잡힌 내용 구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2009 개정 고등학교 미술과 교육과정의 ‘미술 문화’ 과목 목표에서도 미술 감상과 미술비평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인간의 삶 속에서 미술을 이해함으로써 비평적 사고력과 미적 감수성을 길러 생활을 풍요롭게 영위할 수 있는 문화적 소양을 가지도록 하는 데 있다.’고 제시하면서 그 하위 목표로서 미술의 기능과 소통 방식의 이해, 비평적 관점에 근거한 미적 가치의

판단, 확장된 미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창의적인 활용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학교 교육 현장에서 미술감상과 미술비평 교육은 여전히 표현 활동에 비하여 수업 비중이 부족한 편이다. 감상 활동도 형식적이고 지식 중심의 단편적인 교육으로 운영됨으로써 미술비평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술 문화’ 과목의 감상 영역을 바탕으로 탐구 중심의 비평 방법을 활용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비평 교육의 대안을 찾아보았다.

본 연구는 현대미술비평 교육에 적합한 이론으로 게히건의 비평적 탐구과정을 적용하여 미술비평 지도 방안을 연구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먼저 미술비평 탐구이론과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게히건의 비평적 탐구과정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미확정적인 대상의 가치를 직면하는 과정에서는 비평적 추론의 경험을 강조하였고 작가의 의도 및 작품에 관련된 사실적인 정보 수집의 필요성을 깨닫도록 하였다. 즉 담화적 성격의 단계적 절차를 따르기보다는 순환 과정의 유연성을 강조함으로써 문제에 대한 가설을 세우고 추론을 통해 이를 검증하는 활동에 중점을 두었다.

따라서 미술비평 교육의 실천적 방안에 대한 제안은 현대미술의 개념 확장에 따른 총체적인 변화를 반영하여 현대미술 작품의 가치를 해석하고 판단하는 탐구과정 중심의 수업으로 진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해결해 나가는 ‘학습하는 방법’을 체득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었다. 교수·학습 방법으로는 탐구과정별 발문 중심의 상호 토의 및 토론 학습을 활용하여 공동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협력 활동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비평 능력을 개선하는 효과를 가져 왔다. 그 결과, 학생 활동 중심의 탐구과정과 상호 협력에 따른 토의 및 토론 학습은 현대미술비평 교육의 효율성은 물론이고 학교 현장에서의 비평 교육의 적용 가능성을 높이게 되었다.

※ 본 논문은 2017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목 차

국문초록	i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
II. 이론적 배경	3
1. 미술감상과 미술비평 교육의 이해	3
2. 현대미술과 게히건의 비평적 탐구 방법의 이해	6
III. 고등학교 미술 교육과정 및 교과서 분석	16
1. 2009 개정 고등학교 미술과 교육과정의 이해	16
2. 고등학교 ‘미술 문화’ 교과서의 분석	19
IV. 게히건의 이론에 근거한 미술비평 지도 방안	22
1. 고등학교 미술비평 수업의 적용 원리	22
2. 현대미술비평 교수·학습 지도의 실제	24
V. 결론	50
참고문헌	52
ABSTRACT	54

표 목 차

<표 1> 듀이의 탐구 단계와 게히건의 비평적 탐구 단계의 비교	14
<표 2> 게히건의 비평적 탐구 활동	15
<표 3> 미술의 감상 영역의 내용 체계	18
<표 4> 출판사별 감상 영역의 비율	20
<표 5> 출판사별 감상 영역의 도판 개수에 따른 현대미술의 도판 비율	21
<표 6> 비평적 탐구과정의 수업 적용 모형	23
<표 7> 단원 학습 목표와 차시별 학습 목표	26
<표 8> 차시별 교수·학습 흐름도	27
<표 9> 차시별 수업 자료	28
<표 10> 수업 전 설문 분석 결과	29
<표 11> 1~2차시 교수·학습 과정안	31
<표 12> 3~4차시 교수·학습 과정안	34
<표 13> 5~6차시 교수·학습 과정안	38
<표 14> 미술비평문 쓰기의 여섯 단계	39
<표 15> 7~8차시 교수·학습 과정안	44
<표 16> 1~2차시 수업 만족도 분석 결과	47
<표 17> 3~4차시 수업 만족도 분석 결과	48
<표 18> 5~6차시 수업 만족도 분석 결과	48
<표 19> 7~8차시 수업 만족도 분석 결과	49

그림 목 차

<그림 1> 브레인스토밍 자료	32
<그림 2> 공공성과 예술성에 대한 토론 자료	35
<그림 3> 연구과제: 학생 퍼포먼스 1, 2	37
<그림 4> 연구과제: 학생 퍼포먼스 3, 4	37
<그림 5> 가설 검증: 학생 비평문 1	42
<그림 6> 가설 검증: 학생 비평문 2	43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1세기의 미술을 포괄하여 지칭하는 동시대미술, 즉 현대미술의 영역은 소재·기법·매체의 사용에 따라 크게 확장되고 있으며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또한 사회·문화·정치·경제의 전반적인 시대 흐름 속에서 단일한 표현 방식과 미술 형식이 사고 과정까지 포함하는 다원화 양상을 보여주기도 한다. 이에 따라 현대 미술을 감상하는 시각과 기준도 과거와 다른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미술작품을 바르게 감상하는 방법과 이를 해석하고 비평하는 독창적인 시각이 중요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술 교육에 있어서 표현 활동에만 치중된 기능 위주의 교육보다는 표현 활동과 비평 활동이 골고루 반영되는 체계적이고 균형 잡힌 내용 구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미술 교육에서의 비평은 미술작품의 가치에 대한 이해 및 해석을 통해 미술작품의 존재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비판적 능력을 길러주는 학습 활동이다. 또한 미술감상 활동을 기반으로 하여 미적 경험의 내용과 비평적 사고능력을 향상시키며 이를 미술적 언어로 정교하게 만들어 주는 활동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서 미술비평 활동은 언어를 매개로 하여 다른 사람에게 미술작품에 대한 가치를 설득하는 매우 중요한 교육적 기능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학교 현장에서의 미술비평 교육은 중요성은 인식하지만 비평 교육에 대한 이해와 관심의 부족으로 인해 지식중심의 감상 교육에만 치중되어 있는 실정이다. 미술감상 및 미술비평에 대한 다양한 교육 방법이 부족한 점도 실질적인 비평 교육의 저해 요인이기도 하다. 따라서 학교 현장에서의 미술비평 교육이 교양 위주의 형식적인 감상 활동으로 끝나버리지 않도록 탐구적인 태도를 바탕으로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비평 교육의 대안이 절실하다.

고등학교 미술 교육에 있어서 미술비평의 중요성은 2009 개정 고등학교 미술과 교육과정의 ‘미술 문화’ 과목 목표에 잘 드러나 있다. 그 내용에는 미술의 이해를

통해 비평적 사고력을 증진시키고 미적 감수성을 기르는 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대미술의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고등학교 미술 교육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미술비평 지도 방안을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본 연구는 현대미술비평 교육을 연구함에 있어 게히건¹⁾의 비평적 탐구과정을 적용하여 현대미술의 가치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미술비평 지도 방안을 제안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에 따른 연구 내용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술감상과 미술비평에 대한 개념을 선행 연구와 문헌 자료를 통해 파악하고 그에 따른 개념과 교육의 본질에 대해 살펴보았다.

둘째, 현대미술비평 교육을 위해 먼저 현대미술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대미술비평 교육의 의의를 탐구하였다. 그리고 동시대미술로 불리고 있는 현대미술을 효율적으로 비평하기 위해 듀이²⁾의 탐구 이론과 이를 배경으로 삼고 있는 게히건의 비평적 탐구과정의 이론에 대해 고찰하였다.

셋째, 연구의 대상인 고등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2009 개정 고등학교 미술과 교육과정과 ‘미술 문화’ 과목의 목표 및 내용을 살펴본 후, 교과서 내의 감상 영역과 그에 따른 현대미술 도판의 비중을 분석함으로써 교과서를 활용한 현대미술비평 교육의 가능 범위를 파악하였다.

넷째, 연구 대상인 고등학교 1학년에 적합한 현대미술비평 교수·학습 지도 방안의 절차에 대해 알아보고, 수업 도구로서 탐구과정별 발문과 토의 및 토론 학습을 중심으로 차시별 교수·학습 과정안을 작성하여 수업에 적용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제주시에 위치한 S고등학교 1학년 2개 학급, 4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1) 게히건(George Geahigan): 미국 인디애나 주 퍼듀대학에서 Art & Design, 미술 교육 전임자로 재직 하였으며 미술 교육 학술지에 다수의 연구를 기고하고, 미술비평가로 활동하였다.
2) 듀이(Jone Dewey, 1859~1952): 미국의 철학자이자 교육학자. 미네소타·미시간·시카고·컬럼비아 각 대학에서 교수를 역임하였고 ‘전국교육협회’ 명예회장을 지냈다. 1896년 시카고 대학교의 실험학교를 통해 학교와 집, 이웃을 통합하고 학습자의 생활과 결합한 미술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미술감상과 미술비평 교육의 이해

1) 미술감상과 미술비평의 개념

미술작품은 귀중한 역사적 산물이자 문화적 업적이다. 이를 통하여 그 시대의 문화의 변천과 특징을 이해할 수 있으며 다른 문화도 깊게 이해하고 향유하는 태도를 가지게 된다. 감상은 이러한 미술작품을 보고 느끼는 활동으로 보는 이로 하여금 심리적 안정을 주고, 생활을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정서적 태도에 영향을 준다. 무엇보다 “감상하는 일은 일반적으로 일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미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지는”³⁾ 활동이다. 또한 예술학에서는 감상을 미적 향수뿐만 아니라 예술을 인식하는 것, 해석하는 것, 지각하는 것, 수용하는 것 등의 다양한 의미로 정의하고 있다.⁴⁾

라틴어의 ‘어프리시에투스(appreciatus)’로부터 파생된 감상이란 단어는 영어로 ‘어프리시에이션(appreciation)’이며, ‘평가하다’, ‘진가를 알아보기’ 등의 뜻을 지닌다. ‘평가하다’의 의미는 구체적인 미술작품이나 자연물을 대상으로 미적 가치에 대하여 보고 느끼는 과정에서 미적인 판단을 하고 그것에 대하여 ‘평가하다’는 의미로서 ‘주관성’이 가미된 정서 활동이다.⁵⁾ 무엇보다 미술감상은 일상 속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사물의 의미나 삶의 양상을 체험할 수 있고 삶을 새롭게 볼 수 있는 자세를 가질 수 있으며, 다양한 예술적 표현 능력의 향상과 함께 사물에 대한 인식 및 가치 판단 등의 사고에 영향을 미친다.⁶⁾

따라서 감상 활동은 미술작품을 통해 그 의미를 찾아보고 다양한 체험 과정 속에서 정서적 가치를 느끼는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미술작품에 대한 이해와 감동을 기반으로 하여 미술작품과 대화를 나누고, 이를 자기화하는 경험을 하게 함으로써 미술비평의 근간이 되는 사고 활동이다.

3) 강영주 외(2015), 「서양미술사전」, 미진사, p.15.

4) 박휘락(2003), 「미술감상과 미술비평 교육」, 시공사, p.24.

5) 이성도·임정기·김황기(2013), 「미술 교육의 이해와 방법」, 예경, p.264.

6) 김현주(2012), 『미술감상 수업 지도방안 연구: 대학 교양과목에서 범학문학적 미술감상 수업 중심으로』, 기초조형학연구, vol.13 no.2, 한국기초조형학회, p.175.

그렇다면 비평은 어떤 의미일까? 그리스어의 ‘크리네인(Krinein)’라는 어원에서 출발한 비평은 영어로 ‘크리티시즘(criticism)’이며, ‘분할하다’, ‘구분하다’, ‘결정하다’, ‘식별하다’ 등의 뜻을 지니고 있다. 18세기 이후 본격적인 위상을 갖게 된 개념으로서 “미술작품의 판단 기준, 평가, 가치 등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룬다.”⁷⁾ 또한 미술작품을 판단·평가하고 선택하며, 동시에 타당한 이론의 근거를 제시하는 활동이다. 즉 미술작품의 해석과 감상을 거쳐 가치를 평가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미술비평에 대한 국내외 학자들이 정의한 개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아이스너⁸⁾는 비평의 기본적 기능은 교육에서 출발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미술비평을 통해 시각적 감수성을 발달시키고, 미술작품이 지니고 있는 시각적인 질을 언어로 훌륭하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신장시킨다고 본다. 전자가 미적 감수성의 증진이라면 후자는 작품의 시각적 특성에 반응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적절하게 언어로 표현하는 영역을 포함한다. 펠드먼⁹⁾에 의하면 미술비평은 언어로 기술될 수 있는 담화로서 예술뿐만 아니라 인간의 조건을 발견하고 이를 공유하는 것으로 보았으며 조직적이고 형식화된 논의라고 강조하였다¹⁰⁾. 박휘락은 “미술작품에 대한 분석과 의미 해석, 그리고 그 가치 판단 작용”¹¹⁾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김수현은 “미술 세계에 대한 이해력, 즉 미술사에 대한 지식이나 예술과 문화의 가치에 대한 미학 이론이 포함된 시각적 문해력을 신장시킨다는 점에서 미술비평의 유용성에 주목”¹²⁾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미술비평은 언어를 통해 미술작품의 예술적 의의를 평가하고 감상자에게 설득력 있는 지침을 줄 수 있는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개인의 주관적인 기호에서 출발하기보다는 객관성과 타당성을 갖춘 가치 판단의 과정에 주목한다. 즉 미술작품의 다양한 형식과 주제, 그리고 작가의 개성과 작품의 세계를 종합하여 타당한 분석을 필요로 하는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다른 문화와 사회의 다양성을 적극 체험하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적인 지식과 경험을 통합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미술비평 활동으로 발전하게 된다.

7) 강영주 외(2015), 전계서, p.421.

8) 아이스너(Elliott W. Eisner, 1933~2014): 교수, 미술학자, 국제미술 교육학회(INSEA) 회장을 역임하였다.

9) 펠드먼(Edmund Bruke Feldman, 1924~): 교수이자 미술학자로서 미술비평의 4단계, 즉 기술, 분석, 해석, 평가의 단계적 절차에 의한 비평방법을 주장하였다.

10) 박휘락(2003), 전계서, pp.48~50.

11) 박휘락(2003), 상계서, p.53.

12) 김수현(2011), 『미학의 원리에 기초한 미술비평 지도 방법』, 미술교육논총, vol.25 no.1, 한국미술교육학회, p.2.

2) 미술감상과 미술비평 교육의 본질

미술감상은 가치 지향적이고 수용적인 활동인 데 반하여, 미술비평은 미술작품에 대한 가치 판단의 작용이다. 다시 말해서 미술비평 활동은 해석과 판단 활동이 언어를 매개체로 하여 이루어지는 데 비하여 미술감상은 반드시 언어를 도구로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근본적인 차이를 지니고 있다.¹³⁾ 그러나 미술 교육의 측면에서 보면 미적 향수의 내면화 과정으로서 감상 활동은 비평의 출발점이 되며, 시각적 문해력과 이해력을 키우는 비평 활동의 도달점은 감상이 된다. 따라서 미술감상과 미술비평은 개별적인 활동으로 보기 보다는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서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술감상 교육은 사물에 대한 정서적 능력과 가치 해석 능력을 길러주며 조화로운 정신적 성장에 기여한다. 이를 기반으로 미술작품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와 지식뿐만 아니라 작품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접근을 통해 미적 판단력을 기르는 미술비평 교육으로 나아가게 된다. 특히 미술작품을 감상할 경우, 감상자는 보편적인 인식 경험으로는 해석되지 않는 불가피한 사실을 통해 추론의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자신의 추론을 뒷받침할 정보를 찾게 되고 미술작품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한다. 미술비평 교육은 이러한 탐구 욕구에서 출발하여 작품의 가치에 대한 판단의 근거와 해석의 준거를 제시하여 객관적인 사고의 공감대를 형성하게 하는 중요한 학습 활동이 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미술감상을 바탕으로 하여 미술비평 교육의 탐구적 태도를 비평의 본질로 파악하자 한다. 미술비평 교육의 중요한 요소로서 탐구는 미술작품을 통해 다양한 사회 현상을 이해하려는 활동으로 발전하기 때문이다. 또한 미술 비평 교육은 학생들에게 자신과 타인의 문화, 사회를 이해하고 현대 사회를 더불어 살아가는 세계의 시민으로서 자신과 남을 이해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¹⁴⁾ 무엇보다도 고등학교 ‘미술 문화’ 과목이 지향하는 목표인 인간의 삶 속에서 미술을 이해함으로써 비평적 사고력과 미적 감수성을 길러 생활을 풍요롭게 영위할 수 있는 문화적 소양을 기르는 것에도 부합된다고 볼 수 있다.

13) 박휘락(2003), 전제서, p.60.

14) 고은실(2008), 『미술비평교육의 필요성과 의의에 대한 연구』, 미술교육논총, vol.22 no.2, 한국미술교육학회, p.85.

2. 현대미술과 게히건의 비평적 탐구 방법의 이해

1) 현대미술에 대한 이해

현대미술은 인상주의를 기점으로 20세기에 성행한 다양한 유파와 사조를 포괄하는 개념에서 출발하고 있다. 특히 1839년 카메라의 등장은 재현에 목표를 두었던 것에서 벗어나 조형미나 개념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게 된다. 그리고 동시대인들에 의해 제작되는 현 시대의 미술로 정의되는 동시대미술은 21세기, 포스트모더니즘이 등장한 1970년대를 출발점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대미술의 범위를 이러한 미술 패러다임의 변화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동시대미술로 제한하여 비평 교육의 변화를 모색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먼저 현대미술의 네 가지 특성, 즉 미의 가치 기준의 변화, 장르의 확장, 다원주의 양상, 소통 방식의 변화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대미술은 미에 대한 가치 기준의 변화가 두드러진다. 이는 궁극적인 미의 개념과 고전적인 가치가 붕괴되어 미술개념의 패러다임 전환에서 오는 근본적인 변화이다. 그 배경이 되는 포스트모더니즘 운동은 현대미술의 형식에 있어 통합적인 경향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미술의 경계가 사라지고 계층 간의 위계도 무너지는 상황을 고려할 때, 진리나 미를 추구하는 고전적이며 독자적인 가치의 체계보다는 각각의 서로 다른 영역이 상호 침투하고 교류하면서 나타나는 탈중심적이고 탈이성적인 사고 현상을 보여주기도 한다. 중요한 것은 전통적인 미술 영역의 구분이 아니라, 작품 속에 내재되어 있는 유기적인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와 작품이 세상과 어떻게 관계하고 있는지에 대한 입장에 주목하게 된다.¹⁵⁾

둘째, 장르의 확장을 꾀한다. 미술가의 다양한 자율성이 반영되는 부분으로서 현대미술은 실험적이고 다양한 표현 방식들이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장르의 확장은 미술계 이외의 영역으로 확장을 꾀하게 되는데 미술의 개념 또한 사회적이거나 문화적 영역으로까지 확장시키고 있다.¹⁶⁾ 그리고 주제나 제작 방식,

15) 진영은·강성원(2007), 『현대미술의 개념 확장과 교육적 의미』, 미술교육논총조형교육, vol.21 no.3, 한국 미술교육학회, p.27.

재료 및 매체 종류의 다양화, 재료와 매체를 표현하는 기법 등에서 전통 미술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작품들이 현대미술을 형성하고 있다. 자유분방한 활동보다는 작가 자체의 규율을 모색하거나 임의의 규율을 찾아보려는 표현에서 그 특성을 찾아볼 수 있다.

셋째, 다원주의 양상을 보여준다. “다원주의는 특정한 하나의 것만을 주류로 간주하려는 사고방식과 반대되는 관점으로서 어떤 단 하나의 접근 방식이 대폭적인 지지나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고 다수의 양식이 공존하는 것을 말한다.”¹⁷⁾ 특히 다원성은 다른 것이라는 철학적 의미를 담고 있는데 다원화는 전통 이론 및 그동안 아무런 저항이 없었던 폐쇄성, 획일성, 강제성을 비판하면서 서로 다른 가치 체계를 담아낼 수 있는 문화적 인식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즉 현대 미술은 다원화를 통해 전통적인 주제와 방법을 포함한 다양한 주제와 양식, 매체가 편견 없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고 있다.

넷째, 소통 방식의 변화가 두드러진다. 객관적인 의미 전달을 위해 함축적이고 극한의 주관성을 추구하는 현대미술에 대한 공감의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는 부분이다. 현대미술 감상자는 미술관의 작품을 시각적으로 관조하는 소극적인 감상에서 나아가 작품의 제작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능동적인 태도를 갖도록 요구한다. 이렇게 행위와 참여의 관계가 새로운 의미로 구성되는 것은 새로운 형태의 예술을 창조하는 것과 동일한 맥락이다. 예술에 대한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새로운 인식의 보급과 교육이 함께 공존할 때 작품과 감상자 간 소통이 생기게 되고 더욱 긴밀해지게 된다.

오늘날 포스트모던한 사회 구조 속에서 소통으로서의 미술은 사회적 역할과 기능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¹⁸⁾ 그리고 미술 표현의 중심은 표현 그 자체보다는 이를 넘어서서 작가의 사고와 경험에 초점을 맞추는 개념으로서의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 즉 미학과 미술비평 등에 관한 이론적 담론들이 많아짐에 따라 미술 현상 자체보다는 총체적이고 다양한 맥락 속에서 현대미술과 소통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16) 성민우(2009), 『동시대미술의 특성에 관한 연구』, 미술교육논총, vol.23 no.3, 한국미술교육학회, p.184.

17) 월간미술(2014), 「세계미술용어사전」, 월간미술, p.80.

18) 성민우(2009), 상계서, pp.182~187.

본 연구가 이러한 동시대미술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역사성의 부재로 교육적인 의미 해석에 어려움을 겪는다. 또한 전통적인 미술 형식처럼 단순히 감상을 필요로 하는 작품이 아니라 미술 행위에 대한 의미의 부여, 관람자와의 소통 방식 변화 등은 해석의 난해함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그러나 작품 안에 있는 공감각을 자극하는 요소와 극한의 복잡성을 추구하는 다양한 모습은 미술작품이 가장 주관적인 방법으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모습이다. 현대미술의 특성에 대한 가치 판단과 해석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2) 현대미술비평 교육의 의의

학교 현장에서의 미술감상 활동은 보고 느끼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현대미술에서는 미술작품도 개념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나타나면서 미술감상과 미술비평은 보고 느끼는 활동에서, 보고 읽고 느끼는 것으로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즉 보고 느끼는 단편적인 감상에서 벗어나 보고 읽고 해석하는 감상으로의 전환이 적극 필요해진 것이다. 특히 오늘날의 미술 교육은 현대미술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변화를 바탕으로 다양한 매체 활용 및 기법의 수용 양상, 예술 상호간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포괄적인 소통 방식을 이해하는 능력을 필요로 한다. 미술의 새로운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미술의 인식 전환이 근본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현대미술이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현대미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감상 교육의 결핍에서 온다. 이러한 결핍은 교육적 측면에서 현대미술의 개념을 보다 체계적이고 포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¹⁹⁾ 또한 현대미술은 작품에 대한 의미 구성 과정에서 감상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요구하며, 감상 교육 역시 감상자의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감상을 지향하고 있다. 이전의 미술과 다른 새로운 형태로 전개되고 있는 현대미술작품의 의미를 풍부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하려면 이러한 감상 교육을 바탕으로 보다 적극적인 미술비평 활동이 함께 수반되어야 한다. 즉 현대미술을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는 과정을 통한 내면화가 미술비평으로까지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이에 따른 현대미술비평의 교육적 의의를 네 가지 측면에서 고찰해보면 다음과 같다.

19) 진영은·강성원(2007), 전계서, p.34.

현대미술비평 교육은 동시대미술의 가치 기준이 가변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시대성, 관계성, 복잡성, 그리고 표현의 다중성 등을 그 특징으로 하는 현대미술은 미술작품에서 보고 느낀 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자료들을 찾고, 그 의미를 신중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본 것이 얼마만한 가치를 지니는 것인지 평가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흥미와 가치를 지니게 될 것인지 아닌지 결정할 필요가 있다.²⁰⁾ 무엇보다 가치 기준의 가변성은 미술 교육을 통해 미술작품의 복잡성과 미술적 사실을 판단해야 하는 미술비평의 중요성을 알게 한다. 미술은 시각적인 형식을 주로 다루는 예술 영역으로서,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것을 소통하게 하는 특성을 지닌다. 그렇기 때문에 미술 교육은 그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 미술교육 이론의 배경은 동시대라는 시대적 경향과 사회적인 틀 안에서 생성된다는 것과 같은 시대의 철학을 공유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둘째, 현대미술비평 교육은 사회·문화적 역할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 미술비평은 미술의 사회적 역할을 이해하고 언어를 사용하여 사고를 하거나 글을 쓰거나 대화를 함으로써 작가와 관객의 관계, 미술의 사회·문화적 역할에 대해 더욱 잘 이해하게 된다. 미술작품을 감상한다는 것은 보면서 느끼고, 느끼면서 더 많은 것을 보도록 돕고 있기 때문에 비평 활동을 하면서 작품을 보는 사회·문화적인 시각과 함께 감수성이 길러지고 비판 능력을 갖춘 교육적 통찰력도 길러준다. 따라서 시대적 변화와 요청에 따라 다양한 이론과 실천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21세기의 정보화와 세계화를 시대적 특성으로 하는 사회문화적 추세 또한 다양한 미술 교육을 요구하고 있다.²¹⁾

셋째, 현대미술작품에 대한 감상자의 통합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모더니즘은 객관성과 보편성에 기초하여 미술가에 의해 결정된 의미를 발견하는 수동적인 감상 역할을 요구하였지만 포스트모더니즘은 작품에 대한 복합적인 해석을 통한 창조적인 미술가로서 감상자의 역할을 기대한다. 특히 동시대 미술에 대한 비평적 사고 활동으로서 다양한 경향성과 개인적, 사회적 가치관의 해석과 공유를

20) 윌립 예나원 (2013), 「알기 쉬운 현대미술감상의 길잡이」, 한국미술연구소 역, 김영나 감수, 시공사, p.7.

21) 진영은·강성원(2007), 전게서, p.24.

강화하고 있는 새로운학문기초미술교육(Neo-DBAE)²²⁾에서도 미술 교육의 통합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즉 다른 학문과의 통합적 접근을 통해 미술이 더 이상 창조하는 자와 수용하는 자를 구분 짓지 않고 다양한 소통의 방법을 모색하여 통합적인 형태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다.²³⁾

마지막으로 현대미술비평 교육은 미술작품의 무조건적인 수용을 지양하고 비판적인 시각과 비평적인 태도로 접근하기를 요구한다. 무엇보다 현대미술을 보다 적극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술비평이 필수적인 활동이다. 미적 교육이란 미술작품에 관련된 모든 활동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루는 광범위한 경험을 내포한 교육 활동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대의 미술 교육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삶에 대한 직·간접적인 반영으로서 학습자 중심의 능동적 활동을 통한 비평적인 태도가 더욱 요구된다.

앞서 논의한 현대미술의 다양한 특성을 기반으로 하여 학교 현장에서의 현대 미술비평 교육은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서 비평 교육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전환을 필요로 한다. 현대미술은 더 이상 범위의 제한이나 한정된 개념이 부여될 수 없으며 표현의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더욱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현대미술비평 교육에 있어서 탐구적 태도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중심 내용으로서 비평적 탐구과정은 현대 미술의 경향과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 시각적 예술의 범위를 넘어 다양하게 확장되고 있는 미술을 효과적으로 비평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시각뿐만 아니라 다른 감각기관, 사고 체계까지 적극 활용하는 현대미술의 특성을 비평 교육을 통하여 미술을 이해하는 폭을 넓히고 비판 능력을 향상시키는 계기를 마련해 주기도 한다. 이처럼 오늘날 현대미술비평 교육은 다른 영역들과 연계된 통합적 접근을 통하여 자기 표현의 한 방법으로서 미술의 교육적 역할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²⁴⁾

22) 새로운학문기초미술교육(Neo-DBAE, Neo-Discipline-Based-Art-Education): 1980년대 아이스너에 의해 교육과정이 만들어지고 미술학자들에 의해 정립된 DBAE 미술 교육 운동은 네 가지 미술 교육 방법, 즉 미술 제작 활동, 미적 지각 활동, 미술사, 비평적 평가에 기초한 지적사고 체계를 강화하면서 대두되었다. Neo-DBAE는 이를 개선하여 통합적 학습의 접근을 강조하면서 미술 학문에 기초한 네 가지 영역을 중심으로 비평적 사고 활동을 중시하면서 포스트모더니즘과 다문화 사회의 수용을 미술의 내용으로 확장하고 있다. 오늘날 미술 비평 교육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23) 성민우(2009), 전게서, p.190.

24) 진영은·강성원(2007), 전게서, p.46.

3) 게히건의 비평적 탐구 방법

게히건은 기존에 연구된 미술비평의 학습 방법을 비판하면서 미술작품의 의미와 가치 판단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탐구과정을 통한 비평 학습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의 바탕이 되는 게히건의 비평적 탐구 이론은 두 가지 관점에 의해 논의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비평학습이 미술 교육에서 보편적으로 시도되었던 펠드먼의 미술비평 단계의 한계에 대한 지적과 게히건의 비평적 탐구 이론의 기본이 되는 듀이의 탐구 이론에 대한 적용 부분이다.

먼저 게히건의 비평적 탐구과정은 펠드먼이 지닌 단계 절차적, 그리고 기존의 절차적 미술비평 단계의 한계점에 대한 지적에서 출발하고 있다. 그 한계점을 네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평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활동에 대한 개념들이 지나치게 단순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미학자들은 미술비평의 활동을 ‘지식을 전달하는 행위’, ‘이해를 전달하는 행위’, ‘가치를 전달하는 행위’ 등의 세 가지로 분류하는데 실제로 담화의 형태는 매우 다양해서 펠드먼이 주장하고 있는 기술, 분석, 해석, 평가와 판단의 단계로만은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둘째, 펠드먼의 비평 방법은 교사들에게 예술에 대하여 말이나 글로 표현하는 담화 형식의 비평으로만 인식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한다. 즉 기존의 비평 학습은 담화의 방법으로서 언어에만 의존된 학습이었으며, 단순한 선상구조로 진행되는 문제점으로 인해 쓰거나 말하는 언어적 활동으로만 제한한다는 주장이다.

셋째, 펠드먼의 절차에 의한 비평 방법은 상호 토론이 자유롭지 못하는 점을 지적한다. 대화나 토론은 절차에 따른 단계별로 나아가는 방식에서는 의미 있는 토론을 억제시켜 활성화되지 않는다. 따라서 작품에 대한 학생들의 다양하고 복잡한 경험적 측면들이 무시되면서 기계적인 순서로 인하여 제한된 반응을 초래한다.

넷째, 단계적 절차로 인한 문제점을 지적한다. 펠드먼의 이론은 선형 구조의 단계로서 획일적이고 비순환적인 사고과정에 따른 형식에만 치중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바렛²⁵⁾은 이에 대해 “논리적인 해석 없이 기술한다는 것은 불가능

25) 바렛(Terry Barrett): 교수, 비평가. 미술비평과 사진비평에 관한 주요 저서를 집필했으며 현대미술에 관련한 논의에 학교와 지역사회 그룹을 참여시키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하며 기술과 해석의 관계는 순환적 관계”²⁶⁾임을 지적하면서 단계적 절차만 따르는 비평과정의 오류를 개선하고자 한다. 인간의 사고와 추론 행위는 순환적인 정신 활동이기 때문에 획일적이고 단계적 절차에 의한 인지 활동으로는 실행되기 어렵다고 파악하고 있다.²⁷⁾

다음은 게히건의 비평적 탐구에 따른 기본 배경은 존 듀이의 탐구 이론이다. 듀이의 미적 비평의 중요한 특징은 의미의 해석이 아니라 의미가 발생하는 방법에 대한 탐구라는 점을 강조한다. 즉 의미들이 발생하는 방식에 대한 탐구로서, 듀이가 비평하고 있는 부분은 ‘적용된 매체의 기능’, ‘미적 효과의 성취’에 있다. 그리고 비평가의 역할은 의미들이 존재하게 되는 방식을 명료하고 분명하게 설명하는 것이지 의미 그 자체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미적 비평은 본질적으로 ‘방법론적인 것’인 만큼 알려져 있는 의미들의 평가와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미적 과정 그 자체, 즉 ‘의미가 발생하는 방법’을 밝히는 것에 가치를 두는 비평이다.²⁸⁾ 최초로 ‘학습의 구조화’의 필요성을 제기한 듀이의 이론은 학교 교육 현장에서의 다양한 수업 지도 방식으로서 반성적 사고 형태를 조장한다. 본 연구의 비평적 탐구의 체계를 형성하고 있는 듀이의 탐구과정은 다음의 여섯 단계로 집약된다.

첫째, 문제 인식의 단계이다. 탐구의 선행 조건으로 문제에 대한 탐구가 시작되는 단계이다. 즉 불확실한 문제 상황에 부딪혔을 때 내적 갈등에 빠지게 되면서 탐구가 가능해지는 단계이다. 또한 불명확한 상황 속에서 적절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는 단계로서 대상에 대한 숙고가 시작되는 출발점이며 모든 사고의 배경이 된다.

둘째, 문제의 명료화 단계이다. 탐구자는 주어진 문제, 즉 혼란을 일으키는 불확정적 상황에 포함된 조건들을 명료하게 관찰함으로써 살펴보아야 하는 문제들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찾아내는 단계이다. 탐구해야 할 문제들을 더욱 뚜렷하게 드러낸다는 것은 탐구자가 정확한 탐구과정의 필요성을 알게 되고 본격적인 탐색의 활동에 들어가게 된다는 걸 의미한다.

26) 김창식(1999), 『비평을 통한 감상 교육의 방안 연구』, 초등교육연구논총 제14집, 대구교육대학교, p.145.

27) 김지원(2010), “G. Geahigan의 비평적 탐구 이론에 근거한 중학교 미술감상 지도 방안 연구”, 상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42~43.

28) 김연희(2009), 『‘질적 탐구’로서의 미술비평: Jone Dewey의 관점에서 교육적 미술비평에 대한 재고찰』, 미술교육논총, vol23 no.1, 한국미술교육학회, p.309.

셋째, 가설 설정 단계이다. 문제점이 명료해지면 탐구자는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하게 되면서 본능적으로 가설을 설정하게 된다. 즉 예측을 통해 상황을 해결하려는 단계이다.

넷째, 가설에 대한 결과추론 단계이다. 탐구자는 자신이 생각했던 여러 가지 가설들의 의미에 대하여 그 결과를 추론해 보는 단계이다.

다섯째, 가설검증의 단계이다.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가설을 검증하는 단계로 관찰과 실험, 조사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가설을 분석한다. 이 과정에서 가설에 대한 추론이 증명되지 못하는 실패를 겪더라도 반성적 사고로서 또 하나의 교훈으로 삼을 수 있다. 즉 문제와 가설 설정, 또한 추론과 검증 방법 등에 대해 더욱 명료화하는 기회가 제공되는 단계이다.

여섯째, 전망 단계이다. 탐구과정을 통해 얻은 지식을 다른 탐구 분야에 적용·응용한다. 무엇보다 다른 작품의 의미와 가치 결정에 기여하게 되는 단계이다.

이렇게 듀이가 제시한 탐구과정 속에는 인간의 경험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가장 효율적이며 바람직하게 이끌 수 있는 학교 교육 활동의 중요성을 전제하고 있다. 무엇보다 학교 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으로 재구성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개인의 성장 발달을 돕는 과정이라 규정하고 있다. 듀이가 제시한 개인의 성장 발달은 결국 학습자 자신의 흥미와 욕구, 더불어 개인의 삶에 관련된 것으로부터 학습이 출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²⁹⁾

게히건은 이러한 듀이의 탐구과정을 미술비평 교육 방법에 적용하여 비평적 탐구과정을 제안하면서, 미술비평은 작품의 의미와 가치를 탐구하는 과정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학습된다고 주장한다.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탐구과정을 교사의 발문에 따라 토의와 토론 수업에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미술비평의 효율성을 찾고자 한다. 아울러 현대미술비평 교육에 있어서 비평적 탐구 과정이 어떤 역할을 하는 지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따라 게히건의 비평적 탐구과정과 그 바탕이 되는 듀이의 탐구 단계가 서로 어떻게 상호 작용하고 있는 지를 살펴보면 게히건의 비평적 탐구과정의 의미를 더욱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다. 듀이가 제시한 여섯 단계의 탐구 단계와 게히건의 비평적 탐구 단계를 비교해 보면 다음 <표 1>과 같다.

29) 이로서(2007), “비평적 사고능력 신장을 위한 미술감상 지도방안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26~27.

<표 1> 듀이의 탐구 단계와 게히건의 비평적 탐구 단계의 비교

구분 단계	존 듀이의 탐구 단계	게히건의 탐구 단계
문제 인식 상황	탐구의 선행조건으로서 불확실한 문제 상황에 대한 내적 갈등이 일어나는 단계이다.	미적 탐구의 초기적 조건으로 탐구 작품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문제인식, 작품과 작품의 부분적 측면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대상의 장점이거나 가치에 대한 자신의 견해에 확신을 갖지 못하는 단계이다.
⇕		
문제의 명료화	불확정적 상황에 포함된 조건들을 명료하게 관찰하여 앞의 문제 인식 상황 단계에서 느낀 혼란을 파악하여 찾아내는 단계이다.	불확실한 상황에 감춰진 조건들을 명확하게 관찰하여 주어진 문제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인식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찰에 의하여 불확정적 상황에서 야기된 혼란의 원인을 찾아내는 단계이다.
⇕		
문제 해결 방안 모색	부각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어떤 결과로 나타날 것인가에 대한 예측이 수행되는 단계이다.	탐구자에게 떠오른 작품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해결 방안들을 바탕으로 하여 본능적으로 탐구 작품의 의미나 가치에 대한 가설을 형성하게 되는 단계이다.
⇕		
가설 결과 추론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이전의 지식과 경험의 체계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해 결과를 추론하는 단계이다.	탐구자는 작품의 의미나 가치에 대한 가설들의 결과를 추론함으로써 작품을 보는 방식이나 작품들이 만들어진 맥락, 화가에 대한 어떤 사실들이 가설을 뒷받침하도록 요구하게 된다. 즉 미적 체험자들을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주도록 요구하는 단계이다.
⇕		
가설 검증	자료나 정보를 이용하여 가설을 검증함으로써 가설을 확정하기 위한 외적 행동의 실험적 검증 단계이다.	탐구 작품의 의미에 대한 가설들은 작품의 세밀한 관찰을 통해 검증된다. 따라서 탐구 작품과 관련하여 맥락에 대한 배경적 정보 자료로 가설을 검증하는 단계이다.
⇕		
결론의 적용 및 응용	문제 해결을 통해 얻어진 탐구 결과를 다른 문제 해결에 적용 및 응용되는 단계이다.	의미와 가치에 대한 탐구 결과를 다른 작품의 의미와 가치 결정에 적용 및 응용하는 단계이다.

출처: 김창식(2002), 『Dewey의 반성적 사고와 Geahigan 비평적 탐구』, 미술교육연구논총, vol.13 no.2, 한국초등미술교육학회, pp.40~41.

게히건은 듀이의 여섯 단계를 자신의 비평적 탐구 단계에 도입하여 미술비평 학습에서 작품을 평가하는 일은 감상자의 능력과 태도, 주변 환경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게히건의 비평적 탐구 과정에 따른 교수 모델에는 개인적 반응, 학생 연구 활동, 개념 및 기술의 개발 등 세 가지 유형의 교육적 활동을 추가로 포함하고 있다.³⁰⁾ 이와 같은 내용을 토대로 하여 게히건의 비평적 탐구 활동을 정리해보면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게히건의 비평적 탐구 활동

교육 영역	탐구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술작품에 대한 개인적 반응 	작품의 특징 및 비미학적 특징 찾기, 문제 분명화하기, 문제 해결 방법 생각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연구 활동 ▪ 개념 및 기술의 개발 	학습자료 읽기, 미술관 관람, 인터넷 활용, 프로젝트 학습, 참고 서적 읽기(미적 개념, 정의, 미학적 용어로 비평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품의 특징을 미학적 용어로 소개하기 ▪ 학습한 개념을 학습한 작품에 적용하기 ▪ 다양한 수작업 경험하기 ▪ 학습한 지식 나누기 	초기 개인적 반응의 변화 확인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단하기 ▪ 결과를 일반화하기 ▪ 다른 작품에 적용 및 응용하기 	

출처: 김창식(2002), 『Dewey의 반성적 사고와 Geahigan 비평적 탐구』, 미술교육연구논총, vol.13 no.2, 한국초등미술교육학회, p.42.

<표 2>의 내용으로 볼 때 게히건의 탐구 활동은 미술작품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문제를 제시하여 비평적인 반응을 유도하고 있다. 즉 여러 가지 교수·학습 방법을 포함하는 다양한 탐구 활동을 통해 정보를 얻어야 한다는 의식을 강하게 심어주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이러한 게히건의 비평적 탐구에 의한 비평 활동은 미술의 의미와 가치를 파악하기 위한 교육적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미술비평 교육의 핵심 원리는 비평적 탐구과정에 있다고 강조한다. 본 연구에서도 학생 탐구 활동의 핵심 내용으로서 비평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활용된다.

30) 박휘락(2003), 전계서, p.237.

Ⅲ. 고등학교 미술 교육과정 및 교과서 분석

1. 2009 개정 고등학교 미술과 교육과정의 이해

교육과정이란 개념은 지식, 인간, 자연, 환경, 문화 등을 보는 관점에 따라 다양하지만,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정은 학생이 경험하는 총체 또는 학교가 제공하는 경험의 총체라는 광의의 개념으로 정의”³¹⁾할 수 있다. 학교에서 계획하고 실천하는 교육과정은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행위다. 이러한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행위는 달성하고자 하는 교육 목적 및 목표가 존재한다. 그러므로 학교에서 계획하고 실천하는 교육과정은 학교의 교육 목적 및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교육 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하고 실천하고 평가하는 제반 행위를 가리킨다. 따라서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학교 교육에 적용하고자 하는 교육과정은 교육 목표와 내용, 방법, 평가를 체계적으로 조직한 교육 계획으로 정의한다.

2009년 12월 23일에 고시된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주된 방침은 학습 부담의 적정화, 의미 있는 학습 활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집중이수의 확대, 과거의 암기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으로의 변화를 추구한다. 무엇보다 학습자의 학습 부담의 경감을 위해 교육과정 편제의 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자 수시 개정 체제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고등학교 미술 교육의 목표는 학생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진로 개척 능력과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질 함양에 중점을 두고 개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현대미술비평 지도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과목 중 미술의 감상 영역의 비중이 높은 ‘미술 문화’ 과목을 선정하여 그에 따른 목표를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미술 문화’ 과목의 교과서 영역 중에서 미술의 감상 부분을 발췌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31) 이미숙 외(2013),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연구-중보편』, 한국교육과정개발원, p.51.

1) ‘미술 문화’ 과목의 목표

미술은 개인적인 창작 행위의 결과물인 동시에 시대와 사회의 산물이기도 하다. 이는 미술작품이 형성되는 데 있어서 사회·문화적 배경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미술 문화’ 과목의 목표는 인간의 삶 속에서 미술을 이해함으로써 비평적 사고력과 미적 감수성을 길러 생활을 풍요롭게 영위할 수 있는 문화적 소양을 가지도록 하는 데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하위 목표는 다음과 같다.

- (1) 생활 속에서 미술의 기능과 소통 방식을 이해하고 적용한다.
- (2) 미술의 변화와 흐름을 이해하고 비평적 관점에 근거하여 미적 가치를 판단한다.
- (3) 확장된 미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창의적으로 활용한다.³²⁾

2) ‘미술 문화’ 과목의 내용 및 영역과 기준

‘미술 문화’ 과목의 내용 체계는 세 개의 대영역, 즉 미술의 기능, 미술의 감상, 미술의 확장으로 나뉘져 있다. 그리고 각 대영역별로 두 개의 하위 내용을 담고 있으며 모두 여섯 개의 중영역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미술비평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미술 문화’ 과목의 내용 중에 미술의 감상 영역 부분의 내용 체계, 성취 기준, 교수·학습 방법, 평가 부분을 살펴보았다.

(1) 내용 체계 및 성취기준

‘미술 문화’ 과목의 대영역인 미술의 감상은 <표 3>과 같이 두 개의 중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분석과 해석 영역은 감상 대상의 조형적 특징을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고 해석하는 역할을 한다. 하위 요소로 미술작품의 조형적 특징을 분석하고 미술작품과 작가를 역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맥락에서 해석하는 데 중점을 둔다. 그리고 판단과 활용 영역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비평 방법을 이해하고 작품의 가치 판단을 강조한다. 즉 미와 미술의 다양한 가치 판단 기준을 이해하고 다양한 비평의 관점과 방법을 활용하여 비평문을 작성하는 영역이다.

32) 교육과학기술부(2011),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1-361호, 별책 13, 미술과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pp.26~63.

<표 3> 미술의 감상 영역의 내용 체계

대영역	중영역	소영역
미술의 감상	분석과 해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술작품의 조형적 특징 분석하기 ▪ 미술작품과 작가를 역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맥락에서 해석하기
	판단과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와 미술의 다양한 가치 판단 기준 이해하기 ▪ 다양한 비평의 관점과 방법을 활용하여 비평문 작성하기

출처: 교육과학기술부 저(2011),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1-361호, 별책 13, 미술과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pp.27.

(2) 교수·학습 방법

미술의 감상 영역은 지식의 전달보다는 학생들의 삶과 관련하여 관심 있는 사례에 관하여 토론하고 학생들이 감상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익혀 자신의 관점에서 실제 작품을 비평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학생과 교사의 상호 작용을 활발하게 하려면 시범, 강의, 개별 작업 및 협동 작업, 게임, 현장 견학, 극화, 토론 등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활용하고 학습자의 지적 호기심과 학습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발문을 하도록 노력하고, 개방적 질문을 적극 활용한다. 그리고 미술의 개념 이해와 비평 활동에서 타 교과와 연계하여 다양한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풍부한 해석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미술관이나 박물관 견학 뿐만 아니라, 산업 박람회, 건축 박람회, 인테리어 전시나 공연 등 공공 문화 행사에 대한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수업에 활용한다.

(3) 평가

지식, 이해, 적용, 분석력, 해석력, 판단력, 표현력, 창의성, 발표력, 토론 능력, 태도 등을 평가한다. 평가 방법은 평가 목적과 평가 내용에 적합한 것을 선정 하며 타당도, 신뢰도, 객관도가 높은 평가 방법과 도구를 개발하여 활용한다. 다양한 평가 방법으로는 지필 평가, 실기 평가, 관찰법, 비평문 등의 글쓰기 형식과 구두 발표, 토론법, 연구보고서법, 포트폴리오 등 다양한 평가 방법 등이 있다. 특히 수행 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지역 및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계획을 세워야 한다.

2. 고등학교 '미술 문화' 교과서의 분석

2009 개정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미술 과목은 2개의 일반 과목과 8개의 심화 과목 등 10개의 미술 과목으로 편성되어 있다. 일반 과목은 2개의 선택 과목으로서, '미술 창작' 과목은 미술의 제반 현상을 바탕으로 창조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는 데 중점을 둔다. 그리고 '미술 문화' 과목은 비평적 사고력과 미적 감수성을 기르는 과목으로 편성되어 있다. 심화 과목은 전문적인 능력을 배양하고자 하는 '미술 이론', '미술사', '드로잉', '평면조형', '입체조형', '디자인·공예', '미술 전공 실기', '영상 미술' 등 총 8과목이 제시되어 있다. 특히 '미술 창작' 과목은 2007 개정 교육과정과 이후의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계속 편성되어 사용되고 있다. 반면, 2009 개정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새롭게 등장한 '미술 문화' 과목의 경우 2007 개정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선택 과목이었던 '미술과 삶', '미술 감상' 과목을 통합한 과목이다.

본 연구에서는 2009 개정 미술과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미술의 감상 영역을 기준으로 삼고 있기에 일반 과목 중, '미술 문화' 과목을 선택하여 미술비평 지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게히건의 비평적 탐구과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미술의 감상 영역의 비중을 파악하고, 현대미술비평 교수·학습 과정안 개발에 따른 현대미술의 비중을 분석할 필요가 있었다. 이를 위하여 우선 각 출판사별 '미술 문화' 과목의 감상 영역의 비중을 살펴보고, 감상 영역 중에서도 현대미술 도판의 현황을 파악하여 '미술 문화' 과목이 현대미술 비평 교육에 얼마나 부합 되는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1) 교과서의 감상 영역 현황

학교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미술 문화' 과목의 교과서는 출판사별 8종이 사용되고 있었다. 각 출판사별 교과서의 감상 영역 비중은 교과서별 페이지 수를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전체 페이지 수에 대한 감상 영역의 페이지 수와 그 비율을 환산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출판사별 감상 영역의 비율

출판사	전체 페이지 수	감상 영역 페이지 수	백분율(%)
(주)교학사	196	64	32.99
(주)금성출판사	208	70	33.65
(주)미래엔	136	38	27.94
미술과생활	144	28	19.44
미진사	216	40	18.52
씨마스	208	72	34.62
(주)아침나라	176	58	32.95
(주)천재교육	184	45	24.46
평균	183.50	51.88	28.07

출처: 김지혜(2015), “고등학교 미술문화 교과서의 미술감상 영역 분석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pp.59.

위의 <표 4>를 통해 출판사별로 감상 영역의 전체 페이지 수에 따른 감상 영역의 비율이 각각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감상 영역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교과서는 씨마스로 34.62%이고 가장 낮은 비중을 보이고 있는 교과서는 미진사로 18.52%였다. 그리고 ‘미술 문화’ 과목의 8종 교과서 전체의 감상 영역 비율은 평균 28.07%로서, ‘미술 문화’ 교과서의 다른 영역, 즉 미술의 기능과 미술의 확장 영역에 비하여 비중이 낮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감상 영역과 표현 영역에 대한 학교 미술감상 및 미술비평 교육의 비중을 반영하는 부분이기도 했다. 따라서 균형 잡힌 미술 교육을 위해서 미술 비평 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었다.

2) 교과서의 현대미술 도판 현황

교과서의 현대미술 도판 현황은 인상주의 출현부터 동시대미술까지를 기준으로 하였다. 먼저 ‘미술 문화’ 교과서의 감상 영역과 부록에 실려 있는 미술사 연대표의 전체 도판 개수를 파악하고, 그 중에서 현대미술의 도판 개수를 다시 살펴보았다. 그 비율을 환산하면 <표 5>와 같다.

<표 5> 출판사별 감상 영역의 도판 개수에 따른 현대미술의 도판 비율

출판사	감상 영역 도판 개수	현대미술 도판 개수	백분율(%)
(주)교학사	389	153	39.33
(주)금성출판사	367	160	43.60
(주)미래엔	203	48	23.65
미술과생활	188	39	20.74
미진사	474	161	33.97
씨마스	346	131	37.86
(주)아침나라	188	104	55.32
(주)천재교육	153	53	34.64
평균	288.50	106.13	36.14

‘미술 문화’ 교과서에 수록된 감상 영역과 부록에 실려 있는 미술사 연대표의 도판은 미술비평 수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교과서 내의 감상 영역 도판 개수와 현대미술 도판 개수를 파악하여 비율을 비교해 보았다. 감상 영역 및 부록에 실려 있는 미술사 연대표를 포함하여 살펴본 현대미술 도판의 평균 비율은 36.14%였다. 비율이 가장 높은 교과서는 아침나라 교과서로 55.32%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비중이 가장 낮은 교과서는 미래엔 교과서로 23.65%를 차지하고 있었다. 교육과정 내용 체계에서 감상 영역이 분석과 해석, 판단과 활용 등 2개의 중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감상 영역에 쓰이는 도판의 활용 범위를 교과서가 적극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미술비평 교육에서 현대미술 도판과 미술사 부분의 도판을 함께 다루고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출판사에 따라 현대미술 도판의 분량이 감상 영역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차이는 있으나 적지 않은 도판이 수록되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교과서를 활용한 현대미술비평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무리가 없다는 결론을 얻었다. 다만 동시대미술로 제한하였을 때는 수록된 도판이 많지 않아 현대미술의 출발을 알리는 인상주의를 기점으로 도판을 분석함으로써 동시대 미술과의 상호 연관 관계에 대한 비평 교육 자료로 삼고자 하였다.

IV. 계허건의 이론에 근거한 미술비평 지도 방안

1. 고등학교 현대미술비평 수업의 적용 원리

계허건의 비평적 탐구과정을 적용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1학년 대상 현대미술 비평 교수·학습 지도 방안은 다음과 같은 활동 단계에 따라 고찰하였다.

먼저 비평적 탐구과정을 적용하여 반성적이고 유연한 사고가 일어나도록 계획한다. 학생의 개인적 경험에 기초한 초기반응을 충분히 유도한 후, 이것을 탐구의 시작으로 하여 학생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동적인 학습 활동이 되는 토의 수업으로 비평 학습의 의미와 가치를 알게 한다.

둘째, 현대미술의 비평적 탐구 방법은 토론 학습을 중심으로 공동의 결론을 얻도록 한다. 이때 서로 다른 의견을 수용하고 이해하도록 허용적인 분위기를 조성한다. 그리고 토론을 비롯하여 학생 스스로의 탐구를 조장하기 위하여 현대미술비평 활동지를 비롯하여 읽기 자료, 동영상, 웹 자료, 이론 강의, 도서관 자료 탐색 등의 다양한 방법 통해 비평 학습의 효율성을 높인다.

셋째, 현대미술비평 교육은 미학, 미술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관련 영역에 따라 폭넓은 추론이 가능하도록 유도하고, 현대미술과 관련한 개념의 습득과 연구 활동을 통해 작품에 대한 의견과 가치를 검증하도록 한다. 이에 따라 웹 환경이 수반된 장소를 선택하여 활동의 질을 확보함은 물론이고 효과적인 탐구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토의 및 토론 학습을 통해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여 현대미술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교과서 내의 현대미술 영역 또는 이외의 영역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심화 단계를 계획하고, 이후 현대미술 작가의 인터뷰와 이와 관련된 전시회 관람 등의 연계 활동도 고려하도록 한다.

이에 따라서 실제 현대미술비평 교육에 계허건의 비평적 탐구과정을 적용하기 위해 비평 교육에 필요한 교육 활동, 학습 형태, 학습 내용, 학습 환경 등을 고려하여 <표 6>과 같이 ‘비평적 탐구과정의 수업 적용 모형’으로 정리하였다.

<표 6> 비평적 탐구과정의 수업 적용 모형

탐구과정	교육 활동	학습 형태	학습 내용	학습 환경
문제 인식상황	▪ 개인적 반응	▪ 개별학습	▪ 작품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자유로운 반응 도출	▪ 토의 환경
문제의 명료화	▪ 개인적 반응 ▪ 연구활동	▪ 전체 토의 학습 ▪ 소집단 토론	▪ 작품의 세밀한 관찰 ▪ 개념습득 및 가치 분석 ▪ 토론에 따른 작품 인식	▪ 토론 환경
문제 해결 방안 모색	▪ 개인적 반응 ▪ 연구 활동 ▪ 개념 및 기술 개발	▪ 전체 토의 학습 ▪ 소집단 토론 ▪ 개별학습	▪ 작품의 의미에 대한 생각 교환 ▪ 초기 반응의 한계 극복 ▪ 의견 수용으로 폭넓은 가치 설정 ▪ 미적 개념 및 맥락적 지식 탐색을 통해 가치 추론 ▪ 토론활동을 통한 가설 추론의 방향성 설정	▪ 웹 기반 환경 (태블릿 pc) ▪ 토론 환경
가설 결과 추론	▪ 연구 활동			
가설 검증	▪ 개념 및 기술 개발	▪ 개별학습 ▪ 전체 토의 학습	▪ 가치판단 탐색 자료 검증 ▪ 개인적 반응의 변화 확인 ▪ 비판적인 시각을 반영한 다양한 가치 판단 ▪ 학습 결과 일반화하기	▪ 웹 기반 학습 (태블릿 pc)
결과의 적용 및 응용	▪ 개념 및 기술 개발 ▪ 개인적 반응	▪ 개별학습 ▪ 전체 토의 학습	▪ 다른 시각 문화 분야로 응용 및 적용 ▪ 비판적 사고와 탐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개선	▪ 토론 환경 ▪ 발표 환경

<표 6>에서 마지막 단계인 ‘결과의 적용 및 응용’ 과정은 새로운 수업 활동이나 관련 수업의 시작을 의미하기 때문에 교육 활동과 학습 형태를 고정하지 않았다. 또한 각 탐구과정별로 나뉘어져 있지만 수업의 진행에 따라 전후 과정이 이동 가능 하도록 순환적인 형태를 강조하였다. 수업 과정도 탐구과정을 그대로 따르기 보다는 학습 목표와 현대미술작품의 특성, 대상 학생의 수준, 수업 환경, 수업의 분위기에 따라 순환적이며 융통성 있게 진행하였다.

2. 현대미술비평 교수·학습 지도의 실제

본 연구는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한다. 이 시기 고등학생의 예술적 지각은 일반적인 인지와 사회성 발달이 병행된다. 그 특징으로서 정서의 격변과 과도한 비판 의식으로 인해 예술을 멀리 하는 학생이 늘어나고 작품을 생산하지 않게 되면서 타자의 노력에도 무관심해진다. 위기임과 동시에 예술에 관한 역사적, 철학적 문제에 대한 판단의 객관도가 높아지는 장점과 직사주의의 구속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시기다.³³⁾ 이러한 고등학교 시기의 특성을 감안하여 2009 개정 고등학교 미술과 교육과정의 목표와 내용 체계를 바탕으로 고등학교 현대미술비평 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지도 방안을 제안하였다.

1) 단원 및 대상

(1) 단원

- ① 교과서명 및 출판사: 미술 문화, 미진사
- ② 대단원: 미술의 감상
- ③ 중단원: 비평의 눈
- ④ 수업 주제: 현대미술, 가치를 쓰다

(2) 대상: 제주○○고등학교 1학년 2학급, 40명

2) 수업계획 및 방법

(1) 단원 설정의 이유

이 단원은 2009 개정 고등학교 미술과 교육과정 중 ‘미술 문화’ 과목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선정하였다. 미술작품은 개인적인 창작 행위의 결과물이자 시대와 사회의 산물이기도 하다. 이는 미술작품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사회·문화적 배경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미술 문화’ 과목의 목표는 “인간의 삶 속에서 미술을 이해함으로써 비평적 사고력과 미적 감수

33) 박휘락(2003), 전계서, p.93.

성을 길러 생활을 풍요롭게 영위할 수 있는 문화적 소양을 가지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목표 아래 현대미술을 비평의 대상으로 삼는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대미술은 난해성과 복잡성, 다양성으로의 인해 비평 수업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다양한 대중매체, 공공미술 속에서 일상적으로 현대미술을 접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미적 대상에 대한 이해를 확장, 심화시키는 자기 주도적 비평 능력이 더욱 필요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대미술의 모호한 경계와 가변성을 이해하고 그 가치를 탐구하는 과정을 통해 비판적 사고 능력을 키워준다.

둘째, 미술비평은 어렵다는 인식이 많다. 미술작품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과 안목이 있어야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현대미술의 자율성과 독립성, 다양한 영역, 매체, 방법으로 확산되는 변화의 양상은 미술비평의 관점을 통일하여 적용할 수 없게 한다. 따라서 토의 및 토론 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현대미술을 다양한 관점에서 추론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셋째, 현대미술에 대한 비평 활동은 현재의 배경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역사적 시각보다는 사회·문화적 배경에 대한 복합적 영향을 이해하는 영역이다. 급변하는 현대 시각 문화의 영향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미술의 의미와 가치를 확립하는 것은 미술비평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동시대의 산물을 비평하는 것은 삶 속에서 미술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비평의 방법에는 주어진 정답이 없지만 현대미술작품에 대한 관심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품을 보는 통찰력을 키워준다.

이러한 이유를 반영하여 현대미술비평 수업의 진행을 위해 미술작품 도판이 가장 많이 실려 있는 미진사의 ‘미술 문화’ 교과서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미술의 감상 영역 중 소단원에 해당하는 ‘비평의 눈’의 단원을 미술비평 교수·학습 지도 방안에 적용하게 되었다. 그리고 계획된 비평적 탐구과정을 활용한 비평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생 탐구 활동 중심의 토의 및 토론 수업을 활용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탐구과정에 따라 추론과 검증 활동 중심으로 현대미술을 이해하고 비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에 따른 비판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었다.

(2) 대단원 학습 목표 및 차시별 학습 목표

현대미술비평 수업의 진행에 따른 문제 인식, 문제의 명료화, 문제 해결 방안, 가설 결과 추론, 감설 검증, 결론의 적용 및 응용의 과정을 보여주기 위한 대단원 학습 목표 및 차시별 학습 목표는 <표 7>과 같다.

<표 7> 단원 학습 목표와 차시별 학습 목표

구분		내용
대단원 학습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대미술에 대한 서로의 느낌과 생각을 비교하고 자신의 반응을 명료화할 수 있다. ▪ 미술작품에 관한 다양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의미를 추론할 수 있다. ▪ 미술작품의 의미를 해석하기 위한 다양한 비평 방법과 관점을 이해하고 판단하여 검증할 수 있다. ▪ 미술작품의 가치에 대한 탐구결과를 확장하고 소통할 수 있다.
차시별 학습 목표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대미술작품에 보고 명료한 반응을 할 수 있다. ▪ 현대미술작품에 대한 개념을 알고 관찰할 수 있다.
	3~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대 공공조형물의 쟁점을 통해 가치를 토론할 수 있다. ▪ 현대미술의 작품의 의미를 추론할 수 있다.
	5~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술작품의 의미를 해석하고 관점을 이해하여 적용할 수 있다. ▪ 미술작품에 대하여 근거를 들어 비평문을 작성할 수 있다.
	7~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대시각문화에 대한 비판능력을 키울 수 있다. ▪ 창의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비평을 확장하고 소통할 수 있다.

(3) 차시별 교수·학습 흐름도

차시별 단원 지도는 계획된 비평적 탐구과정에 따라 현대미술의 가치를 탐색하고 그에 따른 추론과 검증을 통해 비평문을 작성하여 발표하는 과정으로 계획하였다. 먼저 학생들의 반응을 높이기 위해 브레인스토밍 방법을 활용하여 직관적이고 분석적인 추론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허용적이고 개방적인 수업 분위기를 조성하여 발문 중심으로 토의·토론 수업의 효율성을 높였다. 아울러 미술작품을 보는 비판적인 시각을 반영하는 미술비평문을 작성함으로써 비판적 사고능력의 향상은 물론이고 현대미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고자 하였다. 수업주체인 ‘현대미술, 가치를 쓰다’에 따른 교수·학습 흐름도는 <표 8>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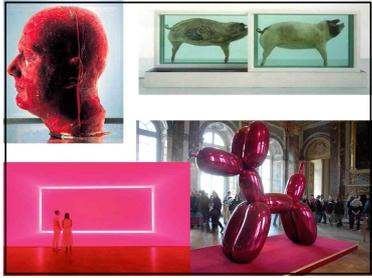
<표 8> 차시별 교수·학습 흐름도

차시	교수·학습 활동	개히건의 비평적 탐구과정	비고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대미술관련 사전 설문 자료 적성하기 ▪ 현대미술작품 감상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브레인스토밍으로 짧은 단어 쓰기 - 자세히 보고 한 문장 써보기 ▪ 현대미술작품 감상 후 짧은 비평문 써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듈별 발표하기 ▪ 현대미술을 통해 예술의 다양한 역할 이해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 인식 ▪ 문제의 명료화 	100분 블록 타임 4회 적용
3~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조형물의 쟁점 추론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찬반 토론하기 ▪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통해 현대미술작품의 의미 해석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설 설정을 위한 작품 토의하기 - 다양한 추론 활동 후 발표하기 ▪ 연구과제를 통한 가치 설정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듈원들과 작품의 의미 탐색하기 - 작품의 의미 파악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 해결 방안 모색 ▪ 가설에 대한 결과 추론 	
5~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품의 의미에 대한 가치 판단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치 판단의 과정 이해하기 ▪ 미술 개념 및 기술 개발하기 ▪ 자신의 관점을 정하여 판단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술비평에세이 작성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설 검증 	
7~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 관점 공유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의 평가 관점 발표하기 ▪ 가치의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대미술에 대한 자신의 소감 밝히기 - 상호평가 및 자기평가하기 ▪ 검증 결과 확장 적용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론의 적용 및 응용 	

(4) 차시별 수업 자료

차시별 수업 진행에 따른 현대미술 이해 및 추론 및 검증에 필요한 참고 자료는 <표 9>와 같다.

<표 9> 차시별 수업 자료

차시	수업 자료	
1~2	 <p data-bbox="422 882 772 913">현대미술 탐구 및 토의 자료</p>	 <p data-bbox="884 882 1316 913">현대미술의 역할에 따른 영상 자료</p>
3~4	 <p data-bbox="368 1220 826 1252">공공미술 프로젝트 '네 번째 좌대' 자료</p>	 <p data-bbox="879 1220 1324 1252">예술의 공공성 토론 결과 도출 자료</p>
5~6	 <p data-bbox="432 1554 762 1585">비평 탐구 자료(평면 예시)</p>	 <p data-bbox="932 1554 1267 1585">비평 탐구 자료(입체 예시)</p>
7~8	 <p data-bbox="395 1897 799 1928">검증과 판단에 따른 재탐구 자료</p>	<div data-bbox="898 1603 1302 1879"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 data-bbox="995 1626 1201 1650" style="text-align: center;">다시 현대미술 이해하기</p> <ol data-bbox="922 1693 1246 1839"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람들이 현대미술에 대해 느끼는 당혹감의 실체 2. 예술은 더 이상 장식에 종사하지 않는다는 사실 3. '예술'이라는 개념은 근현대에 들어 '발명'된 것 4. 미술을 '개념'으로 받아들이기 5. '제도'의 합의를 통해 생산되는 현대예술 </div> <p data-bbox="884 1897 1316 1928">현대미술 이해에 대한 피드백 자료</p>

1~2차시 수업 자료는 현대미술작품의 대면을 통하여 명료한 이해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였다. 3~4차시 수업 자료는 토론을 통한 추론 과정을 경험하도록 현대미술의 가치에 대한 의미를 탐색하게 도와주었다. 5~6차시 수업 자료는 비평문을 쓰기 위한 단계를 제시하여 작품의 의미에 대한 가치를 검증하는 역할을 하고, 7~8차시는 검증 결과를 적용 및 확장하기 위하여 현대미술을 재탐색하는 수업 자료로 활용하였다.

(5) 수업 전 설문 분석

먼저 현대미술비평 수업 전 현대미술에 대한 인식과 비평 수업 경험에 대한 사전 조사를 통해 수업의 범위와 수준을 설정하였다. 세 가지 문항으로 된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수업 전 사전 반응을 알아보았다. 설문 분석 결과는 다음 <표 10>과 같다.

<표 10> 수업 전 설문 분석 결과 (N=40)

문항 1	척도	잘 알고 있다.	알고 있다.	보통이다.	조금 안다.	전혀 모른다.
미술비평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까?	응답 수 (명)	1	2	7	6	24
	백분율 (%)	2.5	5.0	17.5	15	60
문항 2	척도	교과서	참고서적	언론매체	웹사이트	없다.
현대미술은 주로 어디서 접하나요?	응답 수 (명)	24	1	2	6	7
	백분율 (%)	60	2.5	5.0	15	17.5
문항 3	척도	4회 이상	3회	2회	1회	없다.
중학교 현대미술 비평(감상) 수업을 해 본적이 있습니까?	응답 수 (명)	3	0	2	11	23
	백분율 (%)	7.3	0	5.0	27.5	57.3

<표 10>의 수업 전 설문 분석 결과, 미술비평에 대한 인식의 정도를 묻는 문항에는 ‘전혀 모른다’가 60.0%의 응답 비율로 나타나 미술비평 수업에 대한

다소 낮은 인식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리고 현대미술을 접하는 곳을 묻는 항목에서는 60%의 학생이 교과서에서 정보를 얻고 있다고 응답을 하여 현대미술 감상 수업에 있어서 교과서 역할의 중요성을 반영하고 있었다. 또한 중학교 시절의 현대미술비평 및 감상 수업 경험을 알아보는 문항에는 84.8% 학생이 ‘1회’ 및 ‘없다’로 응답하고 있어서 학생들이 인지하고 있을 만큼 충분한 감상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해보면, 현대미술에 대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낮은 인식은 현대미술감상 및 비평 수업의 결핍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었다. 또한 비평 수업의 필요성에 대한 낮은 인식에 대한 개선과 현대미술비평 수업의 방향, 난이도를 결정하는 구체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

(6) 지도상의 유의점

가. 학습자의 호기심과 동기를 유발하고 발문에 따른 반응을 유도하며 개방적 질문을 적극 활용하여 지도한다.

나. 작품에 대해 자유로운 반응을 유도하고 작품에 대한 타인의 비평에 개방적인 태도를 갖도록 유연한 수업 분위기를 조성한다.

다. 작품에 대한 객관적 시각을 가지도록 하며 비평에 대한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라. 비평을 통해 작품 감상에 친숙할 수 있도록 하며 비판을 위한 비평을 지양하도록 지도한다.

마. 현대미술비평을 통해 현대의 사회적 현상과 문제를 미술과 관련지어 연계 및 응용하여 비평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3) 수업의 적용

(1) 1~2차시 교수·학습 단계

1~2차시 교수·학습 단계는 계획된 비평적 탐구과정 중 현대미술의 가치에 대한 ‘명료한 반응’을 이끌어내는 단계로서 작품을 직관적으로 해석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전체적인 수업 진행은 교사의 여섯 가지 발문을 중심으로 현대미술이 지니고 있는 다양한 가치와 문제점에 대한 학생들의 토의를 통해 짧은 비평을 이끌어내도록 진행하였다. 1~2차시 교수·학습 과정안은 <표 11>과 같다.

<표 11> 1~2차시 교수·학습 과정안

관련 단원	미술의 감상 / 비평의 눈		대상	고등학교 1학년
학습 주제	현대미술, 가치를 쓰다		차시	1~2 (100분)
학습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대미술작품에 보고 명료한 반응을 할 수 있다. ▪ 현대미술작품에 대한 비평의 가치를 이해한다. 			
단계 및 탐구과정	교수·학습 활동			자료 및 유의점
도입 (5분)	현대 미술 대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업 전 설문 분석자료 안내 ▪ 현대미술에 대한 인식의 정도 확인 		현대미술 자료 준비
전개 (90 분)	문제 인식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대미술 이해를 위한 직관적인 질문으로 수업의 흥미 유도(현대미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p>[발문 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대미술의 오해와 진실(ppt자료) ▪ 현대미술에 대한 궁금한 점 질문으로 작성해보기 ▪ 브레인스토밍으로 현대미술 짧은 감상 및 단어로 표현하고 토의해보기[발문 2, 3] ▪ 현대미술 길게 감상하고 한 줄 비평문 쓰고 토의해보기 		크레이기 호스필드 ³⁴⁾ 사진 작품 2016 시드니 비엔날레 영상
	문제의 명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대미술을 다양한 각도에서 이해하는 영상 감상한 후 세 가지 질문에 대하여 발표해보기[발문 4, 5, 6] - 오늘날 사회에서 예술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 예술은 인간의 삶에 어떻게 기여할까요? - 예술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정리 (5분)	반응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업에 대한 반응 관찰 ▪ 차시예고 		

대상의 불확실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의 반응을 얻기 위하여 현대미술작품 중 크레이기 호스필드의 흑백 사진 작품을 교수·학습 자료로 제시하였다. 작품을 짧게 본 후 브레인스토밍을 하여 순간적인 반응을 살펴본 후, 점차 시간을 길게 잡아 사회와 자신의 삶 속에서 작품을 감상하도록 하고 이를 비교하여 정리하도

34) 크레이기 호스필드(Craigie Horsfield, 1949~): 영국의 사진작가로 1996년 터너상을 수상하였다.

록 하였다. 여섯 가지 발문에 따른 학생 반응은 다음과 같다. T는 교사의 발문을, S는 학생의 반응을 의미한다.

[발문 1] T 현대미술에 대해 궁금한 점을 질문 형식으로 작성해 주세요.

S1 현대미술에서 작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를 알아차리는 것이 가능한가?

S2 잘 그린 그림과 못 그린 그림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S3 현대미술의 경계는 어디에서부터일까?

S4 현대미술은 정확히 무엇인가?

S5 현대미술의 장르, 이름, 값어치는 그 곳에 존재하는가?

[발문 2] T 다음 작품을 맨 처음 보았을 때 반응을 간단히 묘사해 보세요.



<그림 1> 브레인스토밍 자료 1, 2

S1 삶, 사회, 현실

S2 노동자

S3 당시 사회의 모습을 반영한다.

S4 암울한 느낌의 현실

S5 다중적 진로

[발문 3] T 이 작품이 본인의 내면에 불러일으킨 감정은 무엇인가요?

S1 어떤 암울한 형태든 상태든 결국 살아가는 것이다.

S2 여자의 손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 게 신경 쓰인다.

S3 극심한 고통이 느껴진다.

S4 사진을 흑백으로 찍어 분위기가 적막하게 느껴진다. 그리고 당시 사회의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찍음으로써 당시의 상황을 보여준다.

S5 세상은 발전하지만 절망은 반드시 존재한다.

[발문 4] T 오늘날 사회에서 예술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S1 현실을 간접 반영하고 그에 대한 메시지를 전한다. 서로가 서로에게 말을 걸 수 있는 화두를 던진다.

S2 현실 문제를 지적한다.

S3 사회의 환경과 집안의 분위기를 다르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

S4 현실의 문제를 알리고 서로 힘을 합쳐 해결해나가자고 주장한다.

S5 또 다른 예술을 보여주고, 서로 연동되어 생각하게 만든다.

[발문 5] T 예술은 인간의 삶에 어떻게 기여할까요?

S1 영감을 주고, 원동력이 되어준다. 무언가에 대해 고민할 기회를 주고, 그에 따라 바뀔 수도 있고 정체될 수도 있는 선택을 하게 한다.

S2 현실을 반영함으로써 우리가 현실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

S3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S4 인간의 관점에서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해준다.

S5 감성적인 면모를 자극해 인간답게 만들어준다.

[발문 6] T 예술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S1 결국 현실 혹은 상상에서 작가가 바라보는 것, 고민하는 것, 혹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 보았을지도 모르는 것에 대하여 말을 꺼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S2 인간이란 무엇인지 이해하게 된다.

S3 모르겠다.

S4 단순한 물질적 가치에서 자유롭게 해 준다.

S5 유감스럽게도 정해져 있지 않다. 세상을 살아갈 인생이념과 지지기반을 얻었다.

(2) 3~4차시 교수·학습 단계

3~4차시 교수·학습 단계는 계획된 비평적 탐구과정 중 ‘가설 결과 추론’을 위하여 찬반 토론으로 진행하였으며 그에 따른 공동의 결과를 도출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또한 연구과제를 설정하여 실제 퍼포먼스를 연출해봄으로써 현대미술의 이해를 높였다. 그 결과를 발표하여 현대미술에 대한 가설을 다양하게 추론하도록 하였다. 3~4차시 교수·학습 과정안은 <표 12>와 같다.

<표 12> 3~4차시 교수·학습 과정안

관련 단원	미술의 감상 / 비평의 눈		대상	고등학교 1학년
학습 주제	현대미술, 가치를 쓰다		차시	3~4 (100분)
학습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대 공공조형물의 쟁점을 통해 가치를 토론할 수 있다. ▪ 현대미술의 작품의 의미를 추론할 수 있다. 			
단계 및 탐구과정	교수-학습 활동			자료 및 유의점
도입 (5분)	전시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시 학습 확인 ▪ 현대미술에 대한 인식의 변화 확인 	현대미술 자료 준비	
전개 (90 분)	<p>문제 해결 방안 모색</p> <p>가설 결과 추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미술의 예술성과 공공성에 대한 쟁점 토론 진행(찬반에 대한 의견 교환): 직관적 반응 [발문 1,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텔라³⁵의 ‘아마벨’ 작품에 대한 찬반 의견 - 호프만³⁶의 ‘러버덕’ 작품에 대한 찬반 의견 ▪ 공공미술의 예술성과 공공성에 대한 쟁점 토론 진행(찬반에 대한 의견 교환): 해석에 대한 반응 [발문 3,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텔라의 ‘아마벨’ 작품에 대한 찬반 의견 - 호프만의 ‘러버덕’ 작품에 대한 찬반 의견 ▪ 작품에 대한 찬반의 생각이 바뀐 결과 공유하기 ▪ 예술의 공공성 이해하기[발문 5, 6] ▪ 영국의 런던의 공공미술 프로젝트 ‘네 번째 좌대’ 이해하기 ▪ 작가 중심으로 현대미술 이해하기 ▪ 개인별 퍼포먼스 발표하기[연구과제 발표] 	<p>스텔라 ‘아마벨’ 작품과 호프만의 ‘러버덕’ 작품 제시</p> <p>공공미술 프로젝트 이해하기 (안토니 고퍼 ‘One and Other’)</p>	
정리 (5분)	반응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대미술에 대한 가치 설정 결과 확인 ▪ 차시 예고 		
평가 항목(퍼포먼스)				
상		중		하
현대미술의 이해를 바탕으로 퍼포먼스를 창의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현대미술의 이해를 바탕으로 퍼포먼스를 평이하게 표현하고 있다.		현대미술의 이해를 바탕으로 퍼포먼스의 표현이 다소 미흡하다.

현대미술의 가설 결과 추론을 위한 토론을 위해 호프만의 ‘러버덕’과 스텔라의 ‘아마벨’을 제시하여 예술의 공공성과 예술성에 대한 가치를 판단하도록 하였다.



<그림 2> 공공성과 예술성에 대한 토론 자료

[토론 발문 1(찬성)] T 왜 이 작품은 감동적인가요?(호프만의 ‘러버덕’)

- S1 보는 사람들이 모두가 즐겁게 일상 속에서 현대미술을 즐길 수 있다.
- S2 재미있다.
- S3 즐거움을 선사한다.
- S4 사람들에게 보는 재미를 준다.
- S5 행복감을 준다.

[토론 발문 2(찬성)] T 왜 이 작품은 감동적인가요?(스텔라의 ‘아마벨’)

- S1 난해하지만 그만큼 작품을 접하는 사람들이 호기심을 갖고 바라볼 수 있다.
- S2 분명히 부여된 의미가 있을 것이다.
- S3 고철덩어리이지만 작가의 생각이 담겨있고 자신을 고찰할 수 있다.
- S4 삭막한 도시 가운데 더 삭막해 보이는 고철로 우리의 상황을 볼 수 있다.
- S5 사람들의 관점에서 벗어난 조형물을 접할 기회를 준다.

[토론 발문 3(반대)] T 왜 이 작품은 매력적이지 않을까요?(호프만의 ‘러버덕’)

- S1 전경을 가리는 점이 있다.
- S2 사람들이 몰려들면 너무 싫다.
- S3 너무 커서 주변의 호수를 보지 못한다.
- S4 현대미술작품을 잘 접하지 못하는 시민들에게 작품 감상의 기회를 준다.
- S5 작품을 철거할 때 힘들 것 같다.

35) 프랭크 스텔라(Frank Stella, 1939~): 1960년대 미니멀아트의 대표 주자였으며 실험적 회화를 선보인 미국 화가이자 회화의 특성에 대해 고민한 화가로서 조형에 가까운 작품조차도 회화로 규정하였다.

36) 플로렌타인 호프만(Florentijn Hofman, 1977~): 네덜란드 출신의 세계적인 공공미술 설치작가이다.

[토론 발문 4(반대)] T 왜 이 작품은 매력적이지 않을까요?(스텔라의 ‘아마벨’)

- S1 작품의 생김새나, 위치 등에 대한 난해함이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준다.
- S2 주변과의 조화에 실패했다.
- S3 딱딱한 도시의 분위기와 어울린다.
- S4 작품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다수의 사람들에게겐 그저 도시 미관을 해치는 조형물일 뿐이다.
- S5 예술은 공공성인데 사람들이 싫어하면 철거해야 한다.

[토론 발문 5(결론)] T 작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호프만 ‘러버덕’)

- S1 거대한 온화함이 의도였다는 것을 알아차렸을 때 작가가 대단해 보였다.
- S2 삭막하게 사는 요즘 세상에는 이런 힐링이 되는 무언가가 필요하다.
- S3 석촌 호수의 생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 S4 너무 커서 밤에 보면 무서울 것 같다.
- S5 자연경관만 보고 싶은 사람을 방해할 수도 있다.

[토론 발문 6(결론)] T 작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스텔라의 ‘아마벨’)

- S1 인간성의 회복이라는 상징성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현대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메시지를 준다.
- S2 작가의 의도를 알고 보니 포스코의 상징물이라는 게 이해가 되었다.
- S3 단순한 보여주기 위한 난해함이 아닌 어렵지만 장점이 있고 가치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 S4 꽃이라는 것이 놀라웠다. 입체의 과정에서 탄생한 작품으로서 새로운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사실이 대단했다.
- S5 고철로 꽃송이를 표현했고 제목의 사연이 조금 가슴에 와 닿았다. 그러나 도시의 심미성을 깨뜨리는 것은 여전할 것 같다.

현대미술을 직접 체험해보는 과정은 창의적인 퍼포먼스를 기획, 연출해보도록 하는 연구과제로 설정하여 현대미술의 다양성에 대한 가치를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개인별 학생 퍼포먼스 자료는 <그림 3>, <그림 4>와 같다.

[연구과제 발표] T 현대미술의 이해를 위해 개인별로 퍼포먼스를 연출해보세요.

- S1 의지(두 명이 손을 잡고 서로 마주 선다. 서로 벼랑 끝에 있어도 의지하면 우리는 살 수 있다.)
- S2 컴퓨터(두뇌를 기계에게 빼앗긴 인간을 표현하였다.)

S3 나의 연주 소리(야외수업 시간에 들리는 새소리는 ‘내가 연주한 것’이라는 퍼포먼스를 연출하였다.)

S4 햇볕 쬐는 시간(하루를 60초에 빗대어 1초쯤만 햇볕을 쬐다. 학교에서 체육 시간을 제외하고 햇볕을 쬐 시간은 점심시간뿐이다.)

S5 뭐하지?(고민이 가득한 일상에서 항상 생각하고 선택의 기로에 높이게 하는 말이다.)



<그림 3> 연구과제: 학생 퍼포먼스 1, 2



<그림 4> 연구과제: 학생 퍼포먼스 3, 4

(3) 5~6차시 교수·학습 단계

5~6차시 교수·학습 단계는 계희건의 비평적 탐구과정 중 ‘가설 검증’을 하는 단계로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학교 내 웹 기반 환경을 활용하여 학생이 직접 선택한 작가의 정보를 탐색한 후 현대미술비평문을 작성해보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에 따른 5~6차시 교수·학습 과정안은 <표 13>과 같다.

미술비평문 작성을 위하여 여섯 단계의 단계별 탐구 주제 및 탐구 내용을 제시하였다. 그에 따라 과정별 정보탐색 활동을 통하여 현대미술비평문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단계별 주제와 내용은 <표 14>와 같다.

<표 14> 미술비평문 쓰기의 여섯 단계

단계	탐구 주제	탐구 내용
1	탐구 대상 선정	웹 검색을 활용한 현대미술 작가 찾기
⇕		
2	작가 탐구 활동	작가의 대표작 및 주제, 핵심 아이디어 찾기
⇕		
3	작가 경력 탐색	작가의 일생 및 작품 제작 경력 찾기
⇕		
4	작품 의미 탐색	작가의 작품에 대한 의미와 특징 찾기
⇕		
5	제작 활동 탐색	작가의 발언 및 예술 논평 찾기
⇕		
6	비평문 쓰기	작품을 보는 비판적인 시각 반영하기

[비평문 쓰기 1단계 발문] T 왜 이 작가를 선택했나요?

S1 삶과 죽음의 경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다.(데미안 허스트)

S2 전시회에 다녀온 경험을 살려 다시 제대로 이해하고 싶다.(쿠사마 야요이)

S3 작고 섬세한 것보다 웅장하고 강한 임팩트를 주는 작품이 마음에 들었다.

(리처드 세라)

S4 기하학적 무늬의 작품이 시각 예술가로 분류된 이유를 알고 싶다.(토마 얍츠)

S5 낙서도 그림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재미있다.(키스 해링)

[비평문 쓰기 2단계 발문] T 작가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나요?

S1 과장된 얼굴, 표정, 몸짓의 의미는 무엇일까?(웨민준)

S2 작품에는 호박과 점이 매우 많던데 이유가 있을까?(쿠사마 아요이)

S3 현실과 가상이 뒤섞인 세상에서 진짜 나는 어디 있을까?(정중원)

S4 왜 같은 것을 계속 그렸나요?(앤디 워홀)

S5 강렬한 원색, 간결한 선, 재치와 유머 넘치는 표현, 생동적인 자세의 표현 등에서 무엇을 찾을 수 있을까?(키스 해링)

[비평문 쓰기 3단계 발문] T 작품에 대해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나요?

S1 어린 시절부터 지속되었던 정신분열과 환각증이 어떻게 그림에 영향을 주었을까?(쿠사마 아요이)

S2 작품을 철거한 후 작품에 사용된 천 같은 재료들을 어떻게 처리할까? 쓰레기들이 환경에 영향을 주진 않을까?(크리스토 자바체프)

S3 예술로서의 만화가 강한 호소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로이 리히텐슈타인)

S4 낙서가 사회적인 문제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었을까?(키스 해링)

S5 왜 죽음을 소재로 작품을 제작할까요?(데미안 허스트)

[비평문 쓰기 4단계 발문] T 작가는 어떤 개성의 소유자인가요?

S1 도발적이고 죽음을 피하려는 인간의 욕망을 가감 없이 표현한다. 또한, 죽음과 삶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는 작품을 표현하여 가장 숭고하고도 추악한 고민을 하게 만든다.(데미안 허스트)

S2 가공되지 않은 철을 재료로 조각물이 설치된 공간과 조각 작품, 그리고 그것을 감상하는 관객와의 관계를 연결한다.(리처드 세라)

S3 집의 외형과 바다, 벽, 문, 계단을 비롯해 가구, 침대, 욕조, 싱크대, 책꽂이 등 극히 일상적인 재료들에 대한 관심이 작품에 반영되었다.(레이첼 화이트리드)

S4 알루미늄이라는 새로운 소재 위에 페인팅으로 극사실 회화의 장점을 극대화하였다.(강형구)

S5 스스로를 살아 있는 조각 작품이라고 칭하며 그든 자신이 작품의 소재가 되었다.(길버트&조지)

[비평문 쓰기 5단계 발문] T 작가의 감동적인 발언이나 논평은 어떤 것인가요?

S1 나는 내가 피할 수 없는 것에 정면으로 돌파하라고 배웠다. 죽음이 그 중 하나다.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려는 사회는 어리석다.(데미안 허스트)

S2 나는 내 주위에 있는 모든 것에 나의 영혼의 의지를 불어넣고 싶다.(쿠사마 야요이)

S3 나는 기계에 대한 저항으로써 기계를 사용한다.(백남준)

S4 나의 모든 작업은 ‘예술은 소유할 수 있고, 영원히 존재 한다’는 고정관념을 허무는 데 있다. 그 고정관념에서 해방된 자유야말로 내 작업의 주제다.(크리스토 자바체프)

S5 나를 알고 싶다면 작품의 표면만 봐 주세요. 뒷면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앤디 워홀)

[비평문 쓰기 6단계 발문] T 작가는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나요?

S1 TV를 캔버스로 생각하여 고정된 그림을 움직이는 영상으로 바꿨다.(백남준)

S2 낙서를 통해서도 사회적인 문제의식을 전달할 수 있다.(키스 해링)

S3 현실과 가상이 구분되지 않는 하이퍼리얼리즘을 통해 현실이 오히려 가상을 따라가며 내가 아닌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깨닫게 해준다.(정중원)

S4 삶과 죽음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며 죽음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다. (데미안 허스트)

S5 냉소적 사실주의자로 대표되며 과장된 웃음으로 폭력적인 현실에 눈감는 자아를 표현한 ‘웃음 시리즈’로 주목을 받았다.(웨민준)

현대미술작품에 대한 가설 검증은 미술비평문 쓰기의 여섯 단계를 활용하여 학생들이 직접 작성한 미술비평문으로 판단하였다. 그리고 게히건의 비평적 탐구과정의 핵심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비평문 쓰기 수업은 웹 기반 환경이 잘 조성되어 있는 장소를 선택하여 비판적 시각을 반영하여 작성하도록 하였다. 학생들이 작성한 미술비평문은 <그림 5>, <그림 6>과 같다.

죽음의 양면성을 보여주는 작가, 데미안 허스트(Damien Hirst)

1-1-1 강○○

죽음은 추악한 것일까? 아름다운 것일까? 데미안 허스트는 죽음 속에 숨어 있는 지독한 아름다움, 그리고 아름다움에 내재되어 있는 불가피한 부패를 묘사하는 작가이다. 그의 대표작 <살아있는 누군가의 마음속의 불가능한 물리적인 죽음(The Physical Impossibility of Death in the Mind of Someone Living)>, <신의 사랑을 위하여(For the Love of God)> 등은 죽음과 삶에 대한 진지한 고찰을 하게 만든다. <살아있는 누군가의 마음속의 불가능한 물리적인 죽음(The Physical Impossibility of Death in the Mind of Someone Living)>이라는 작품은 상어를 포름알데히드가 가득 찬 유리 진열장 속에 넣어 박제를 시킨 작품이다. 이 작품은 상어가 살아있었던 순간의 느낌을 담아 역동적인 느낌을 주어 마치 상어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인다. 진짜 작품이 아닌 사진임에도 느껴지는 상어의 감탄스럽지만 소름끼치는 모습에 나는 죽음보다는 삶을 느꼈다. 나는 이런 데미안 허스트의 여러 작품을 보면서 인간이 정의한 죽음이란 무엇일까를 고민하게 되었다. 죽음이란 육체적 죽음을 말하는 것일까? 정신적 죽음을 말하는 것일까?

데미안 허스트의 또 다른 작품인 <신의 사랑을 위하여(For the Love of God)>는 죽은 사람의 해골에 약 200억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를 붙여 죽음을 표현한 작품이다. 데미안 허스트는 이 작품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나는 다만 인간 존재의 무상함을 형상화하여 삶을 찬미하고 싶었을 뿐이다. 죽음의 상징을 사치, 욕망, 타락의 상징으로 포장하는 것보다 더 나은 방법이 있겠는가?”나 역시 이 작품에서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피하려는 인간의 욕망을 돈 즉, 다이아몬드로 형상화 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가장 인상 깊었던 작품은 <천사의 해부학(Anatomy of an Angel)>이었다. 막연히 내가 생각해오던 천사는 인간과는 달랐다. 천계라 불리는 곳에 사는 천사는 인간들이 되고 싶고 바라며 힘들 때 찾는 대상이다. 하지만 데미안 허스트의 <천사의 해부학(Anatomy of an Angel)>은 해부된 천사의 몸에 인간의 장기가 들어있다. 나는 마치 이 작품이 천사는 그저 죽음을 피하고 싶어 하는 인간이 만들어낸 하나의 이야기이자 허상 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 같았다. 또한, 불사라 여겨지는 천사가 해부된 몸에 인간과 똑같은 장기가 들어있는 모습과 아름다운 천사의 외형 사이에서 괴리감을 느꼈다. 이 작품을 보며 인간이 말하는 사후는 무엇일까? 천사의 모습을 아름다운 죽음이라 표현할 수 있을까? 같은 생각이 들었다.

데미안 허스트의 이런 자극적이고 충격적인 미술은 여러 평가를 받는다. 신선한 새로운 시도라는 평가에서부터 사기꾼이라는 평가까지. 일부러 충격적인 모습을 담아 사람들의 시선을 끌려고 한다는 평가도 많았지만 나는 ‘죽고 싶다’, ‘힘들어ㅏㅏ’ 등의 말을 달고 사는 현대인들이 죽음과 삶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한다.

<그림 5> 가설 검증: 학생 비평문 1

자연의 메시지를 담은 현대미술가, 크리스토 자바체프

1-2-17 한○○

크리스토 자바체프는 불가리아 출생의 대지미술가이다. 불가리아 출생인 그는 아내인 잔느 클로드(Jeanne-Claude)와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대지미술은 Land Art 또는 Earthworks로 불리며 지구 표면 위나 표면 자체, 또는 표면 내부에 어떤 형상을 디자인하여 자연 경관 속에 작품을 만들어내는 예술이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도시 재건이 한창이던 1950년대 중반의 예술가들이 문명 비판과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지면서 서구 문명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하게 되었고, 동양철학과 문화가 하나의 대안으로 비춰지며 생겨났다. 크리스토의 작품은 준비 기간이 무척 길다. 한 작품을 작업하기 위해 무려 20년이 걸리는 것도 있다고 한다. 준비 기간에 비해 전시기간은 2주 정도로 짧은 편인데, 돈과 인력, 시간 등 많은 것을 투자하여 만든 작품을 왜 빠르게 철거하는 것일까? 이 질문에 크리스토는 “어린 시절의 추억처럼, 아무리 소중한 것도 영원할 수 없음을 말하고 싶어서”라고 답했다고 한다. 그의 대표작 중 하나인 ‘Wrapped Reichstag’는 베를린의 국회의사당을 거대한 천으로 덮은 작품이다. 그는 “작품에 특별한 메시지는 없지만 세상을 보다 아름답게 만들고 싶다는 것과 빛과 대기와의 반응하는 미술, 사람들이 그것을 만져보게 하고 싶다”는 이유에서 이 작품을 제작했다고 한다. 크리스토의 작품은 작품이 완성된 그 자체만 볼 것이 아니라 제작과정에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만난 사람들, 설치 장소의 지역 주민들, 그리고 제작과정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시행착오들을 세세하게 기록으로 남긴다. 그리고 이를 단순한 고용인과 에피소드 정도로 여기지 않고 결과물과 함께 전시로 보여준다. 그는 작업을 통해 맺어지는 다양한 관계들을 작업의 일부로 여기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상호작용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한다. 사람들은 대개 결과물만 보기 마련이지만, 작업 과정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의미를 부여하여 함께 전시한 크리스토의 가치관은 사람과 사람 간의 상호작용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한다. 주로 자연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작업을 한 그지만, ‘철의 장막’이라는 작품을 통해 파리의 골목길을 가로막아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주면서 베를린 장벽이라는 이념의 상징물을 작품화하기도 한다. 또한 실제 여성을 포장한 작품인 ‘여성을 포장’은 페미니즘의 문제를 나타내고 있는 등 그저 자연에 설치하는 대지미술에서 벗어나 현실을 반영하기도 한다. 그의 작품은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지만 대지미술이라는 애초의 의도와 근본 취지를 벗어나 작품에 대한 거대 자본의 행사가 막강해지면서, 미술 내의 문제로 받아들여지기도 하는 등 논란의 여지가 있다. 게다가 작품에 사용된 어마어마한 양의 천이나 우산 등의 재료들이 철거된 후에는 어떻게 처리될지 도 미지수다. 대지에 설치한 아름다운 미술이 오히려 자연을 해치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작품의 형상뿐만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내면의 의미와, 화려한 모습 뒤의 어두운 이면까지 생각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림 6> 가설 검증: 학생 비평문 2

(4) 7~8차시 교수·학습 단계

7~8차시 교수·학습 단계는 계획건의 비평적 탐구과정 중 현대미술의 다양한 양상들을 비판적 시각에 따른 ‘결론의 적용 및 응용’ 단계로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학생들이 스스로 작성한 미술비평문을 바탕으로 토의 수업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토의는 현대의 시각문화로 확장·적용하여 비판적인 시각을 신장시킬 수 있는 내용에 중점을 두었다. 7~8차시 교수·학습 과정안은 <표 15>와 같다.

<표 15> 7~8차시 교수·학습 과정안

관련 단원		미술의 감상 / 비평의 눈	대상	고등학교 1학년
학습 주제		현대미술, 가치를 쓰다	차시	7~8 (100분)
학습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대시각문화에 대한 비판능력을 키울 수 있다. ▪ 창의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비평을 확장하고 소통할 수 있다. 		
단계 및 탐구과정		교수-학습 활동		자료 및 유의점
도입 (5분)	전시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시 학습 확인(메일 수신에 따른 미술비평문 자료 확인) ▪ 현대미술에 대한 인식의 변화 확인 		현대미술 자료 준비
전개 (90분)	결론의 적용 및 응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술비평문 자료 발표하기 ▪ 발표 내용 중심으로 토의하기[발문 1,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표 내용 중 가장 좋았던 것과 그 이유는? - 발표 내용 중 가장 이해가 어려웠던 것과 그 이유는? ▪ 미술비평문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현대미술 이해 자료 안내 ▪ 현대미술 비판적 시각 적용 및 응용하기[발문 3,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대미술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 대해 발표하기 - 현대미술의 키워드 발표하기 - 현대미술에 대한 정의 내리기[발문 5] ▪ 현대미술비평 수업에 따른 설문 조사 		발표 환경 조성 수용적이고 허용적인 태도 고취
정리 (5분)	반응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대미술에 대한 적용 및 응용 결과 확인 ▪ 차시예고 		

전시 학습에서 작성한 미술비평문 발표에 따른 발문과 학생 반응은 다음과 같다.

[발문 1] T 누구의 비평문이 감동적인가요? 설명해 줄 수 있나요?

S1 김○○(마크 로스코): 형태, 공간, 색채만으로 인간의 감정을 표현하려 했으며 제목이 없다는 점이 특이하게 느껴졌다.

S2 김○○(키스 해링): 현대미술은 우리 삶에 가까이 있다는 사실에 감동받았다.

S3 강○○(데미안 허스트): 죽음에 대한 주제가 정신적 죽음인지 육체적 죽음인지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는 말이 인상 깊었다.

S4 한○○(크리스토 자바체프): 자연의 메시지를 담은 작품 제작 과정을 설명해 주었으며 작품의 제작 과정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느꼈다.

S5 이○○(웨민준): ‘웃음의 역설’이라는 말이 매우 인상 깊었다. 웃음에 대해 본질적으로 생각하게 만든 작품이다.

[발문 2] T 누구의 비평문이 가장 이해하기 어려웠나요? 어떤 부분이었나요?

S1 김○○(리처드 세라): 광장 한가운데 녹슨 철판 하나가 고작인데 그것이 미술이라는 게 이해가 안 된다.

S2 강○○(데미안 허스트): ‘죽음’이라는 주제는 아직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너무 심오한 주제 같다.

S3 현○○(레이첼 화이트리드): 공간을 캐스팅한다는 것이 잘 이해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작품을 만든 목적이나 가치관을 잘 모르겠다.

S4 박○○(한정식): 추상 사진이 어떤 건지 이해하기 어렵다.

S5 원○○(길버트&조지): 왜 이런 퍼포먼스가 세상을 바꾸게 되는 지 이해가 안 된다.

현대미술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확장하기 위한 발문 및 학생 반응은 다음과 같다.

[발문 3] T 현대미술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가장 뚜렷했던 부분은 어떤 것이었나요?

S1 더 이상 현대미술이 가치 없고 생각 없이 만든 환경방해물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되었다.

S2 개인별로 퍼포먼스를 하는 과정에서 현대미술이 굉장히 힘들다고 느꼈다.

S3 현대미술을 원래는 난해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난해함을 해석해 보는 것이 매력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S4 현대미술은 단지 그림이 아니라 작가의 생각이 담겨 있는 작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현대미술이 사회적 인식을 바꾸는데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S5 초반에는 현대미술을 이해하기 어려운 것으로만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즐기게 된 것 같다. 특히 2차시 수업을 했을 때 현대미술과 가까워진 것을 느꼈다.

[발문 4] T 현대미술의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S1 추상성, 주관성(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의미가 바뀌고 의도를 숨기기 때문이다.)

S2 자유로움(자신의 작품을 아무런 제약 없이 표현하는 작가가 많이 보였기 때문이다.)

S3 무엇이냐(무엇이냐 현대미술로 발정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S4 다양성(흔히 미술하면 그림을 떠올리는데 현대미술은 캔버스를 벗어나 다양한 공간을 넘나들기 때문이다.)

S5 전환점(이전까지 미술의 관점을 완전 뒤바꾸는 것이 현대미술이기 때문이다.)

[발문 5] T ‘현대미술은 []이다. 왜냐하면 []이기 때문이다.’에서 []를 채워주세요.

S1 현대미술은 [도약]이다. 왜냐하면 [기존 생각을 뛰어넘어야 하기] 때문이다.

S2 현대미술은 [알아가는 것]이다. 왜냐하면 [많이 알수록 많이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S3 현대미술은 [양파]이다. 왜냐하면 [알수록 과점이 다양해지기] 때문이다.

S4 현대미술은 [최고의 뉴스기사]이다. 왜냐하면 [다양한 형태에 작가가 논하고자 하는 것, 비판하고자 하는 것이 들어가고 사람들에게 화두를 던지기] 때문이다.

S5 현대미술은 [렌즈 없는 사진기]다. 왜냐하면 [그 안에 담은 것은 자유이기] 때문이다.

4) 수업 분석

총 8차시의 현대미술비평 수업 진행에 따른 계획의 비평적 탐구과정의 효율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교수·학습 단계별 총 4회에 걸쳐 수업 만족도를 조사한 후, 학생들의 반응을 측정하였다.

(1) 1~2차시 수업 분석

비평적 탐구과정 중 ‘명료한 반응’ 단계에 해당하는 1~2차시 수업은 발문 형식과 토의 수업으로 답변을 상호 공유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현대미술에 대한 의문점을 질문 형식으로 발표를 하고 그에 따른 토의를 하는 과정에서 현대미술에 대한 개념을 깨닫게 하였다. 아울러 현대미술작품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이끌어 내고 그에 따른 명료한 반응을 유도하였다. 이에 따른 수업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는 <표 16>과 같다.

<표 16 > 1~2차시 수업 만족도 분석 결과 (N=40)

문항	척도	아주 도움이 되었다.	도움이 되었다.	보통이다.	도움이 되지 않았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현대미술의 이해를 위해 각자의 생각을 알아보는 수업은 자신에게 도움이 되었나요?	응답자 수 (명)	13	18	9	0	0
	백분율 (%)	32.5	45.0	22.5	0	0

만족도 분석 결과, 현대미술의 가치를 이해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생각을 알아보는 수업에서 77.5%의 학생이 ‘아주 도움이 되었다’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리고 ‘도움이 되지 않았다’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학생은 한 명도 없었다. 이에 따라 현대미술의 이해를 위해 발문을 통한 토의 수업은 현대미술의 이해 및 명료한 반응에 도움을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3~4차시 수업 분석

비평적 탐구과정 중 ‘가치 결과 추론’ 단계에 해당하는 3~4차시 수업은 예술성과 공공성의 가치에 대한 찬반토론과 연구과제의 설정을 통한 퍼포먼스 체험으로 진행되었다. 그에 따른 수업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는 <표 17>과 같다.

<표 17> 3~4차시 수업 만족도 분석 결과

(N=40)

문항	척도	아주 도움이 되었다.	도움이 되었다.	보통 이다.	도움이 되지 않았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현대미술 분야의 공공성 관련 토론 수업과 퍼포먼스는 현대미술을 추론하는 데 도움을 주었나요?	응답자 수 (명)	15	18	7	0	0
	백분율 (%)	37.5	45.0	17.5	0	0

만족도 분석 결과, 현대미술의 예술성과 공공성 관련 토론 수업과 현대미술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퍼포먼스가 현대미술을 추론하는 데 도움을 주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82.5%의 학생이 ‘아주 도움이 되었다’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여 비교적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그리고 ‘도움이 되지 않다’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학생은 한 명도 없었다. 이에 따라 현대미술의 다양한 추론 활동을 도와주는 토론 수업과 연구과제의 설정을 통한 퍼포먼스는 현대미술의 추론 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5~6차시 수업 분석

비평적 탐구과정 중 ‘가설 검증’ 단계에 해당하는 5~6차시 수업은 웹기반 학습을 통해 여섯 단계의 탐구과정을 체험하는 과정으로 진행하였다. 특히 미술 비평문 쓰기 활동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수업의 비평적 탐구과정을 직접 체험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른 수업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는 <표 18>과 같다.

<표 18> 5~6차시 수업 만족도 분석 결과

(N=40)

문항	척도	아주 도움이 되었다.	도움이 되었다.	보통 이다.	도움이 되지 않았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현대 미술 비평문을 쓰기 위한 단계별로 검증하는 방법은 비평문 쓰는 데 유의했나요?	응답자 수 (명)	25	12	3	0	0
	백분율 (%)	62.5	30.0	7.5	0	0

만족도 분석 결과, 현대미술비평문을 쓰기 위한 여섯 단계별 검증 방법의 유의성을 묻는 질문에 92.5%의 학생이 ‘아주 도움이 되었다’와 ‘도움이 되었다’라고 응답하여 매우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그리고 ‘도움이 되지 않았다’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학생은 한 명도 없었다. 이에 따라 현대미술의 검증 활동을 위한 웹기반 학습은 직접 비평 자료를 탐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비평문 작성 활동에 매우 유익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4) 7~8차시 수업 분석

비평적 탐구과정 중 ‘결론의 적용 및 응용’ 단계에 해당하는 7~8차시 수업은 미술비평문 발표에 따른 토의 수업으로 진행하였다. 비평문을 발표를 통해 작품에 대한 감상의 결과를 상호 교류하여 다양한 관점을 공유하는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다른 시각 문화에도 비판적인 시각을 적용하고 응용하여 보았다. 이에 따른 수업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는 <표 19>와 같다.

<표 19> 7~8차시 수업 만족도 분석 결과 (N=40)

문항	척도	아주 도움이 되었다.	도움이 되었다.	보통 이다.	도움이 되지 않았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현대미술비평의 경험이 다른 시각 문화도 비평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나요?	응답자 수 (명)	23	12	5	0	0
	백분율 (%)	57.5	30.0	12.5	0	0

만족도 분석 결과, 현대미술비평문 발표를 통한 토의 학습은 개인별 비평 의식의 적용과 확장의 정도를 묻는 질문에 87.5%의 학생이 ‘아주 도움이 되었다’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을 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리고 ‘도움이 되지 않았다’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학생은 한 명도 없었다. 이에 따라 현대미술비평문 발표를 통한 상호 토의 수업은 다른 시각 문화에도 비판적 시각을 적용하고 확장시키는 데 유익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V. 결 론

근래에 와서 미술비평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지만 학교 교육 현장에서는 여전히 지식 위주의 형식적인 감상 활동으로 진행되고 있다. 교과서의 영역에 따라 감상 활동과 표현 활동이 균형 있게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능 위주의 표현 활동에 치중되는 경향이 많다. 이는 교사들의 비평 교육에 대한 이해와 관심 부족이 원인이기도 하지만 다양한 미술감상 및 미술비평 지도 방법에 대한 연구의 부족도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현재의 미술 교육 현장에서의 미술비평 교육의 여건과 인식을 바탕으로 현대미술, 즉 동시대미술을 대상으로 미술비평 교육의 실질적인 지도 방안을 모색해 보았으며,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먼저 학교 교육 현장에서 현대미술 인식의 출발은 교과서였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현대미술의 변화 양상과 필요한 정보의 출처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학생들이 교과서를 통해 현대미술을 접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사실을 바탕으로 ‘미술 문화’ 교과서에 실려 있는 감상 영역의 현대미술 도판 비중을 출판사별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출판사별로 감상 영역과 현대미술 도판 비중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무분별하게 쏟아지는 시각 정보를 바르게 비판하는 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에서, 현대미술을 바라보는 올바른 시각과 비평 능력의 신장을 도와줄 수 있는 체계화된 감상 영역 비율과 동시대미술을 충분하게 감상할 수 있는 도판 비율이 부족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본 연구자는 효율적인 미술비평 지도 방안으로 계획된 비평적 탐구 과정을 활용한 현대미술비평 교수·학습 모형을 제시하였다. 100분 블록 타임을 4회 적용한 8차시 분량의 수업 내용은 탐구과정별 발문을 통한 토의 및 토론 학습과 연구과제로서 퍼포먼스 활동이 중심이 되었다. 이에 따른 차시별 수업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교사 중심의 수업보다는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수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비평의 단계와 결과를 미리 암시하기 보다는 추론 활동을 통해 작품의 가치를 탐구하는 학생 참여형 수업에

대한 많은 시사점을 주었다. 특히 단계별 탐구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미술비평문 쓰기 활동에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작가 및 작품 탐색 활동이 용이한 웹 기반 환경은 개인별로 판단과 검증이 자유로웠다는 점이 반영된 결과였다.

셋째, 현대미술비평 지도 방안으로써 계획된 비평적 탐구과정의 적용은 학교 교육 현장에 효율적인 미술비평 지도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차시별 만족도 분석 결과와 개인별 정성평가 내용을 통하여 현대미술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를 끌어올리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개인별 학습 능력 및 경험의 차이에 따라 비평 능력의 정도를 파악하거나 어느 정도 이해하고 해석이 가능한 지를 알아볼 수 있는 정량평가로 이끌어 내지는 못했다. 이 논문을 토대로 더 효율적인 지도 방안을 위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이미 2015 개정 교육과정이 고시(2015. 9. 23.)되어 미적 대상에 대한 반응을 명료화하고 자신의 관점에서 작품의 가치를 평가하여 미술작품에 대한 자신의 비평을 논리적으로 표현하도록 하는 ‘미술 감상과 비평’ 과목이 신설되었다. 2009 개정 미술과 교육과정에서의 미술비평은 그 중요성은 인식되고 있지만 학교 현장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균형 잡힌 비평 교육을 실천하는 분위기를 만들어내지는 못했다. 새로운 교육과정을 통해 미술비평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고해지는 계기가 됨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통해 미술비평 지도 방안이 활발하게 연구되기를 기대하여 본다.

참 고 문 헌

<교 과 서>

- 강규성 외 4인 공저(2014), *고등학교 미술 문화*, (주)아침나라.
김선아 외 6인 공저(2014), *고등학교 미술 문화*, (주)천재교육.
김윤배 외 3인 공저(2014), *고등학교 미술 문화, 미술과 생활*.
노 용 외 4인 공저(2014), *고등학교 미술 문화*, (주)미래엔.
서권수 외 10인 공저(2014), *고등학교 미술 문화*, 미진사.
심영옥 외 7인 공저(2014), *고등학교 미술 문화*, (주)교학사.
이주연 외 2인 공저(2014), *고등학교 미술 문화*, (주)금성출판사.
조익환 외 8인 공저(2014), *고등학교 미술 문화*, 씨마스.

<단 행 본>

- 강영주 외(2015), 「서양미술사전」, 서울: 미진사.
길다 윌리엄스(2016), 「현대미술 글쓰기: 아트라이팅에 대해 알고 싶은 모든 것」, 김효정 역, 안그래픽스.
박휘락(2003), 「미술감상과 미술비평 교육」, 시공사.
월간미술(2014), 「세계미술용어사전」, 월간미술.
이미숙 외(2013),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연구: 증보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이성도 외(2013), 「미술 교육의 이해와 방법」, 예경.
필립 예나원(2013), 「알기 쉬운 현대미술감상의 길잡이」, 한국미술연구소 역, 시공사.

<학술논문 및 정기간행물>

- 고은실(2008), 『미술비평교육의 필요성과 의의에 대한 연구』, 미술교육논총 Vol.22 No.2, 한국미술교육학회.
김수현(2011), 『미학의 원리에 기초한 미술비평 지도 방법』, 미술교육논총 Vol.25 No.1, 한국미술교육학회.

- 김연희(2009), 『‘질적 탐구’로서의 미술비평: John Dewey의 관점에서 교육적 미술 비평에 대한 재고찰』, 미술교육논총 Vol.23 No.1, 한국미술교육학회.
- 김창식(1999), 『비평을 통한 감상 교육의 방안 연구: 초등학교 교사와 아동을 위한 감상 학습 방안 모색을 위하여』, 초등교육연구논총 제14집, 대구 교육대학교.
- 김창식(2002), 『Dewey의 반성적 사고와 Geahigan비평적 탐구』, 미술교육연구 논총 Vol.13 No.2, 한국미술교육학회.
- 김현주(2012), 『미술감상 수업 지도방안 연구: 대학 교양과목에서 범학문학적 미술 감상 수업 중심으로』, 기초조형학연구 Vol.13 No.2, 한국기초조형학회.
- 성민우(2009), 『동시대미술의 특성에 관한 연구』, 미술교육논총 Vol.23 No.3, 한국 미술교육학회.
- 진영은 외(2007), 『현대미술의 개념 확장과 교육적 의미』, 미술교육논총, Vol.21 No.3, 한국미술교육학회.

<학 위 논 문>

- 김지원(2010), “G. Geahigan의 비평적 탐구 이론에 근거한 중학교 미술감상 지도 방안 연구”, 상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지혜(2015), “고등학교 《미술 문화》 교과서의 미술감상 영역 분석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로사(2007), “비평적 사고능력 신장을 위한 미술감상 지도방안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기 타 자 료>

- 교육과학기술부 저(2011),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1-361호, 별책 13, 미술과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ABSTRACT〉

A Study on Methods for Teaching
Modern Art Criticism in High Schools
- Focused on Geahigan's Criticising Methods -

Jae-Hee Park,

Department of Art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J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Yong-Hwan Kim

The most distinctive characteristic of Contemporary Art, also known as Modern Art, is that its range of applications in material, techniques, and media is greatly expanding in accordance with the diversion of art form within the concept of art. Also, it is influenced by the rapidly changing flow of society, culture, politics, and economy and is facing an overall change in terms of the meaning, concept, and expression techniques of creation. This expansion in basic art concept also represents the need for new changes in approaching art education. The methods of appreciating art by reflecting the changing era apart from the past perspectives and standards of enjoying art as well as interpreting and criticising them in a creative perspective are becoming more important than ever. Therefore, in terms of education for understanding Modern Art, systematical and well-balanced contents evenly reflecting expression and criticism rather than education focusing on expressing techniques have become a necessity.

The importance of art appreciation and art criticising is even emphasized in school subjects such as ‘art culture’ within the 2009 revised high school art education curriculum. The contents in the curriculum states that ‘the purpose is to possess cultural refinement that can enrich our lives through cultivating esthetic sensibility and critical thinking by understanding art in human life’ and emphasizes creative activities in various fields while perceiving the understanding the functions of art and communicating methods, determining esthetic values based on critical perspectives, and the importance of expanded art. However, art appreciation and art criticism studies are still insufficient compared to the teachings of expression techniques at schools. Even the art appreciation activities are very formal and focuses on fragmentary lessons and so does not fulfill the educational purposes of art criticism. Accordingly, this study sought an efficient and systematic criticism education alternative using criticism methods focusing on research based on the appreciation areas of ‘art culture’ class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pply George Geahigan’s critical research process which is a suitable theory for modern art criticising education to study methods for art criticising classes. First of all, this study conducted a theoretical consideration on Geahigan’s critical research process based on art criticism research theories and preceding studies. Geahigan’s critical research process experiences critical inference in the process of facing the values of an undecided subject and through this procedure, the researching attitude that realizes the necessity of collecting factual information related to the artwork and the intentions of the artist is emphasized. In other words, this focuses on the activity of verifying through making a hypothesis and inference on a problem by emphasizing the flexibility of a circulation process rather than following a narrative step-by-step procedure.

Therefore, the proposal for a practical art criticising education method is presented by a class focusing on a research process that determines and

interprets the values of artwork by reflecting the overall changes in accordance with the conceptual expansion of Modern Art. In this process, an opportunity for naturally gaining a 'method of learning' is provided which is for finding a problem and solving it on one's own. As for teachers and teaching methods, criticising skills were shown to improve by actively using cooperation learning that derives a common result by utilizing mutual discussion and debates focused on questions for each research processes. Through this, the learning experience in accordance with student-oriented research process and mutual cooperation enhanced the possibility of applying criticism classes in schools as well as the efficiency of Modern Art criticising education.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2017. 8.